

박사학위논문

# COVID-19 전후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25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전공

김        내        영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진택

# COVID-19 전후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Impact of digital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s before and after COVID-19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2024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전공

김 내 영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진택

# COVID-19 전후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Impact of digital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s before and after COVID-19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위 논문을 컨설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전공

김 내 영

김내영의 컨설팅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주 형 근 (인)

심 사 위 원 이 형 용 (인)

심 사 위 원 정 진 택 (인)

심 사 위 원 노 규 성 (인)

심 사 위 원 방 기 천 (인)

# 국 문 초 록

## COVID-19 전후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스 마 트 융 합 컨 설 팅 학 과  
스 마 트 융 합 컨 설 팅 전 공  
김 내 영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매개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규명하였다. 결혼이민자는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취약 계층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술 활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COVID-19 팬데믹 전후의 디지털 활동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자본 형성 및 삶의 만족도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외부 충격 속에서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활동은 선택적 활용에서 필수적 생존 도구로 전환되었으며, 이 변화는 이들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의 주요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팬데믹 전후 시점에서 디지털 활동,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RDD(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와 매개효과 분석을 적용하여 디지털 활동과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 간의 시간적 변화와 인과 관계를 규명하였

다.

본 연구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COVID-19를 기준으로 한 전후 시점을 구분하여 디지털 활동,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① RDD(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분석을 통하여 연구 대상 변수별로 COVID-19 전후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변화가 있는 특정 시기를 특정하였고, 특정시기는 2021년으로 나왔다. ② 2020년과 2021년을 특정하여 구조방정식 매개 모형을 통하여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과 매개효과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이들 변수 사이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6년부터 2023년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RDD로 분석한 결과, 2020년과 2021년 사이에서 디지털 활동, 특히 PC 및 모바일 디지털 정보화 활용과 디지털 생활 서비스 이용에서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상기의 결과는 2019년 말 발생한 COVID-19 팬데믹이 2020년에 만연해지면서 사회적인 고립과 더불어 디지털 정보화 활용 능력 및 사회적 자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2021년 전후로 더욱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디지털 정보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오히려 결혼이민자들의 삶에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고, 사회적 관계 형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디지털 활동이 사회적 자본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간접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보다 2021년의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의 강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생활 서비스 이용과 디지털 활용능력(pc), 디지털 활용능력(모바일)이 모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디지털 활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과한 디지털 활동이 오히려 결혼이민자의 삶에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관계 형성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결혼이민자, 디지털 활동, 삶의 만족도, 사회적 자본, COVID-19  
팬데믹



# 목 차

|                                          |    |
|------------------------------------------|----|
| I. 서 론 .....                             | 1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
| 1.1.1 연구의 필요성 .....                      | 1  |
| 1.1.2 연구의 목적 .....                       | 2  |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 3  |
| 1.2.1 연구의 내용 .....                       | 3  |
| 1.2.2 연구의 범위 .....                       | 4  |
| II. 이론적 배경 .....                         | 6  |
| 2.1 결혼이민자 .....                          | 6  |
| 2.1.1 결혼이민자의 개념과 특성 .....                | 6  |
| 2.1.2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    | 8  |
| 2.1.3 한국 내 결혼이민자 현황 .....                | 12 |
| 2.2 디지털 활동 .....                         | 15 |
| 2.2.1 디지털 활동의 개념과 분류 .....               | 15 |
| 2.2.2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결혼이민자들의 활용 양상 .....    | 17 |
| 2.3 삶의 만족도 .....                         | 20 |
| 2.3.1 삶의 만족도의 개념 .....                   | 20 |
| 2.3.2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                 | 21 |
| 2.3.3 결혼이민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요인 ..... | 23 |
| 2.4 사회적 자본 .....                         | 26 |
| 2.4.1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주요 이론 .....            | 26 |
| 2.4.2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                | 28 |
| 2.4.3 결혼이민자 집단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활용 .....    | 31 |
| 2.5 선행 연구 .....                          | 34 |
| 2.5.1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관계 .....            | 34 |
| 2.5.2 디지털 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    | 35 |
| 2.5.3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 .....            | 36 |
| 2.5.4 팬데믹 시기의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변화 .....    | 37 |

|                                                      |     |
|------------------------------------------------------|-----|
| III. 연구 방법 .....                                     | 39  |
| 3.1 연구 방법 개요 .....                                   | 39  |
| 3.2 연구모형의 설정 .....                                   | 40  |
| 3.2.1 RDD(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분석 .....  | 40  |
| 3.2.2 매개효과 분석 모형 .....                               | 43  |
|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                          | 44  |
| 3.3.1 독립변수 : 디지털 활동 .....                            | 44  |
| 3.3.2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                            | 46  |
| 3.3.3 매개변수 : 사회적 자본 .....                            | 46  |
| IV. 실증분석 결과 .....                                    | 48  |
| 4.1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 .....                               | 48  |
| 4.1.1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 .....                             | 48  |
| 4.1.2 상관관계 분석 .....                                  | 51  |
| 4.2 실증분석 결과 .....                                    | 51  |
| 4.2.1. RDD 회귀분석 결과 .....                             | 51  |
| 4.2.2.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모형 분석 결과 .....                   | 54  |
| 4.3 매개모형 추정 결과 .....                                 | 59  |
| 4.3.1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생활 서비스) .....            | 59  |
| 4.3.2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 .....             | 63  |
| 4.3.3.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_pc) .....         | 66  |
| 4.3.4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_mo) .....          | 75  |
| 4.4 매개 효과 검정 (Sobel 검정, Aroian 검정, Goodman 검정) ..... | 75  |
| V. 결 론 .....                                         | 77  |
| 참 고 문 헌 .....                                        | 81  |
| ABSTRACT .....                                       | 100 |

## 표 목 차

|                                                   |    |
|---------------------------------------------------|----|
| [표 2-1] 한국 내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2023년) .....            | 11 |
| [표 2-2] 한국 내 결혼이민자 지역별 현황(2023년) .....            | 12 |
| [표 2-3] 한국 내 결혼이민자 연도별 현황 (2019년~2023년) .....     | 14 |
| [표 3-1] 디지털 활동의 구성항목 별 문항 구성 .....                | 45 |
| [표 3-2] 삶의 만족도의 구성항목 별 문항 구성 .....                | 46 |
| [표 3-3] 사회적 자본의 구성항목 별 문항 구성 .....                | 47 |
| [표 4-1] 분석 대상 자료의 구성 .....                        | 48 |
| [표 4-2] RDD 분석 데이터 기초통계 .....                     | 49 |
| [표 4-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 51 |
| [표 4-4] RDD 회귀분석 변수별 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 .....          | 53 |
| [표 4-5] RDD 회귀분석 변수별 결과 .....                     | 54 |
| [표 4-6] 매개효과 모형 변수 구성 .....                       | 56 |
| [표 4-7] 주요 변수의 연도별 기술 통계 .....                    | 57 |
| [표 4-8] 더미변수 기초 통계량 .....                         | 58 |
| [표 4-9] 매개모형 추정결과(독립변수:디지털생활서비스/2020년) .....      | 60 |
| [표 4-10] 매개모형 추정결과(독립변수:디지털생활서비스/2021년) .....     | 62 |
| [표 4-11] 매개모형 추정결과(독립변수:디지털활용능력/2020년) .....      | 64 |
| [표 4-12] 매개모형 추정결과(독립변수:디지털활용능력/2021년) .....      | 66 |
| [표 4-13] 매개모형 추정결과(독립변수:디지털활용능력(pc)/2020년) .....  | 68 |
| [표 4-14] 매개모형 추정결과(독립변수:디지털활용능력(pc)/2021년) .....  | 70 |
| [표 4-15] 매개모형 추정결과(독립변수:디지털활용능력(모바일)/2020년) ..... | 72 |
| [표 4-16] 매개모형 추정결과(독립변수:디지털활용능력(모바일)/2021년) ..... | 74 |
| [표 4-17] 변수별 연도별 매개효과 분석 .....                    | 75 |

## 그림 목 차

|                                                   |    |
|---------------------------------------------------|----|
| [그림 2-1] 한국 내 결혼이민자 연도별 현황 (2019년~2023년) .....    | 14 |
| [그림 3-1] RDD Plot 분석 예시 .....                     | 42 |
| [그림 3-2] 매개변수 연구모형 .....                          | 44 |
| [그림 4-1] 연도별·변수별 설문조사 결과 .....                    | 50 |
| [그림 4-2] 변수별 RDD 플롯 .....                         | 52 |
| [그림 4-3] 매개변수 모형 도식 .....                         | 55 |
| [그림 4-4]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디지털생활서비스 / 2020년) .....    | 59 |
| [그림 4-5]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디지털생활서비스 / 2021년) .....    | 61 |
| [그림 4-6]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디지털활용능력 / 2020년) .....     | 63 |
| [그림 4-7]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디지털활용능력 / 2021년) .....     | 65 |
| [그림 4-8]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디지털활용능력(pc) / 2020년) ..... | 67 |
| [그림 4-9]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디지털활용능력(pc) / 2021년) ..... | 69 |
| [그림 4-10]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디지털활용능력(모바일)/2020년) ·     | 71 |
| [그림 4-11]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디지털활용능력(모바일)/2021년) ·     | 73 |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1 연구의 필요성

COVID-19 팬데믹은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부각시키며 개인과 사회의 생활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디지털 기술은 정보 접근성, 사회적 연결, 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특히 결혼이민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적응 도구와 생존 전략을 제공하였다. 결혼이민자는 결혼을 통해 특정 국가로 이주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통합의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는 집단으로, 한국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결혼난 해결을 위해 국제결혼이 본격화된 이후, 점차 도시로 확산되며 한국 사회의 다원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들은 지역사회와의 통합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은 결혼이민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며,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기술의 활용 양상은 크게 변화하였다. 팬데믹 이전에는 디지털 기술이 선택적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후에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결혼이민자들은 원격 교육, 온라인 상담, 전자상거래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은 모든 결혼이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디지털 격차와 낮은 디지털 리터러시로 인해 일부는 정보 접근성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서 배제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과 그로 인한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단기적이고 제한된 범위에서 분석하며,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다년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COVID-19 팬데믹 이전과 이후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 변화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 이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 간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적 포용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년간 데이터를 활용한 장기적 분석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며, 디지털 전환이 가져온 기회와 도전의 균형점을 모색한다. 이러한 분석은 결혼이민자와 같은 소외 집단이 디지털 사회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기여하며, 디지털 포용 정책 및 사회적 자본 확장 전략의 설계에 실질적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디지털 기술은 결혼이민자들에게 정보 접근성 증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경제적 기회 확대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지만, 디지털 격차와 낮은 리터러시로 인해 일부 이민자들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양면적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다년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COVID-19 팬데믹 전후의 디지털 활동 변화를 분석하고, 이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과 사회적 자본의 매개 역할을 실증 분석하였다. 횡단면 시점 분석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팬

데믹을 기준으로 디지털 활동의 양적·질적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디지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삶의 만족도로 연결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COVID-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기술이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도전을 균형 있게 탐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2.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전후를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이 사회적 자본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변곡점에서 디지털 활동의 양적·질적 변화를 규명하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한다.

먼저,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 변화를 분석한다. 디지털 활동은 정보 접근,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경제적 기회 창출을 가능하게 하지만,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는 그 활용 방식과 의존도가 변화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팬데믹 시점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 양상과 변화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디지털 활동은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신뢰 구축 등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며, 팬데믹 전후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비교한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디지털 활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사회적 자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특히 팬데믹 전후 시점을 비교하여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1.2.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변곡점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이 가지는 역할과 그 변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규명하며,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한다.

연구의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로,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다. 결혼이민자는 이주 과정에서 언어적·문화적 장벽 및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며,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독특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분석의 주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는 디지털 활동이며, 디지털 활동은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디지털 활용 능력과 디지털 생활 서비스 이용을 포함한다.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매개변수는 사회적 자본이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국적,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연구는 2차 데이터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수집한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 삶의 만족도, 사회적 자본을 측정한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 RDD(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분석

COVID-19 팬데믹을 포함한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로 분석을 실행하여 디지털 활동,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 간의 불연속적 변화를 분석한다. RDD 분석 중 Sharp RDD(SRD) 방법론을 적용하여 COVID-19 팬데믹 시점 전후로 급격한 변화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 매개효과 분석

팬데믹 전후 디지털 활동이 사회적 자본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 효과를 분석한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규명하여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간접적 상호작용을 확인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 결과를 다른 국가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COVID-19 팬데믹 이외에도 경제적 요인, 정부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이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 지표가 그 모든 요소를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 2.1 결혼이민자

#### 2.1.1 결혼이민자의 개념과 특성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라는 법적, 사회적 결합을 통해 특정 국가로 이주하거나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혼인을 통한 이주를 넘어 문화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깊은 연관을 가지며, 다양한 맥락에서 정의되고 연구된다(Abrams, 2006; Sanchez-Dominguez & De Valk, 2011). 결혼이민자의 존재는 국가별 정책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그 역할과 의미가 달라지며, 이들의 정착과 사회적 통합은 정책적 방향성, 지역 사회의 수용 태도, 그리고 개인적 역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자는 출신국과 이주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이주한 결혼이민자는 새로운 사회에서 기존의 문화적 관습과 가치 체계를 접하면서 상호 문화적 적응이 이루어진다. Brzozowska(2015)는 일부 국가에서 결혼이민자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는 주체로 인식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는 출신국과 이주국의 문화를 동시에 수용하게 되며, 이는 문화적 융합의 상징이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화적 상호작용은 지역 사회의 다문화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법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자는 체류 자격,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며, 각국의 이민법에 따라 그 정의와 요건이 상이하다(Cianciarulo, 2015).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 동시에 가족 재결합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혼인 편의 결혼(sham marriage)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한

다. 이는 이주 국가의 이민 통제를 위한 장치이면서도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경제적 자립과 체류 기간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 다문화 가족지원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법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건의 강화는 결혼이민자가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자는 가족 재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Sanchez-Dominguez & De Valk, 2011). 결혼이민자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는 이들의 사회적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며, 이는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진다. 특히 농촌 지역과 같은 공동체에서는 결혼이민자가 지역 경제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은 공동체의 포용성, 지원 체계, 정책적 배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자는 노동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특히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농촌 지역이나 고령화된 공동체에서는 결혼이민자가 경제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Brzożowska, 2015).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역할은 단순한 노동력 제공을 넘어 경제적 자립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가 소규모 자영업이나 농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이주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결혼이민자의 개념은 문화적 교류, 법적 규제, 사회적 통합, 경제적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이들의 존재는 국가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혼이민자가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는 시대적, 국가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이들의 적응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접근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2.1.2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등장은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결혼이민자의 역사는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결혼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농촌 지역의 미혼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심화되자, 국제결혼은 농어촌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특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이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주로 경제적 기회와 새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농촌 지역에 정착하였다. 이러한 초기 국제결혼의 증가는 경제적 요인과 함께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도 촉진되었으며,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 시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2008년)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김현정, 김범수, 김미예, 2018). 이 법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한 정책적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또한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의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 외에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는 조선족 동포라는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출신국의 다변화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결혼이민자의 특성과 사회적 역할 또한 변화하고 있다. 과거 결혼이민자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배우자의 가정을 돌보는 역할에 국한되었지만, 점차 도시 지역

에서도 생활하면서 문화적 적응과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시로의 이주는 결혼이민자들이 보다 다양한 직업적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시의 높은 경쟁과 생활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결혼이민자는 이제 단순한 배우자 역할을 넘어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강정한(2014)은 결혼이민자의 노동 시장 참여가 가정 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자존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결혼이민자는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하며 가정 경제를 돕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활동은 결혼이민자의 자립을 돕는 동시에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운영, 제조업 종사, 돌봄 노동과 같은 직업은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노동 시장 참여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언어적 장벽, 낮은 교육 수준, 그리고 직업적 차별로 인해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강정한, 2014). 이러한 직업적 불안정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고, 나아가 이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육아와 가사 노동의 부담이 더해지면서 경제 활동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에서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각종 문화 행사, 지역 봉사 활동,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활동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하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 2.1.3 한국 내 결혼이민자 현황

#### 2.1.3.1 한국 내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아래[표 2-1]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내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을 나타낸다. 전체 결혼이민자는 174,895명이며, 남성은 34,526명이고, 여성은 140,369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베트남이다.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는 총 39,956명이며 이중 여성이 35,481명으로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별로 확인을 하면 베트남을 이어 중국, 한국계 중국인,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140,369명으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는 34,526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음을 보여준다. 베트남 국적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 이민에서 특정 국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과 일본 국적자도 지속적으로 주요 국가로 자리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제일 많은 언어로는 중국과 한국계 중국인을 합한 중국어이다. 중국인이 38,705명, 한국계 중국인이 21,343명으로 합하여 60,048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3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중국, 조선족 결혼이민자가 주류를 이루는 것 외에도 다른 국적도 한국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국가는 비록 그 수는 적지만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넘어 결혼이민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데이터는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등 눈에 띄는 성별 불균형을 보여주며, 이는 외국 신부와 관련된 국제 결혼이 훨씬 더 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1] 한국 내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2023년)

| 연번 | 국적      | 성별 | 총합계     |
|----|---------|----|---------|
|    |         | 총계 | 174,895 |
|    |         | 남성 | 34,526  |
|    |         | 여성 | 140,369 |
| 1  | 베트남     | 총계 | 39,956  |
|    |         | 남성 | 4,475   |
|    |         | 여성 | 35,481  |
| 2  | 중국      | 총계 | 38,705  |
|    |         | 남성 | 5,755   |
|    |         | 여성 | 32,950  |
| 3  | 한국계 중국인 | 총계 | 21,343  |
|    |         | 남성 | 8,284   |
|    |         | 여성 | 13,059  |
| 4  | 일본      | 총계 | 15,662  |
|    |         | 남성 | 1,325   |
|    |         | 여성 | 14,337  |
| 5  | 필리핀     | 총계 | 12,557  |
|    |         | 남성 | 610     |
|    |         | 여성 | 11,947  |
| 6  | 타이      | 총계 | 8,669   |
|    |         | 남성 | 140     |
|    |         | 여성 | 8,529   |
| 7  | 미국      | 총계 | 5,093   |
|    |         | 남성 | 3,484   |
|    |         | 여성 | 1,609   |
| 8  | 캄보디아    | 총계 | 4,794   |
|    |         | 남성 | 788     |
|    |         | 여성 | 4,006   |
| 9  | 우즈베키스탄  | 총계 | 2,792   |
|    |         | 남성 | 238     |
|    |         | 여성 | 2,554   |
| 10 | 몽골      | 총계 | 2,583   |
|    |         | 남성 | 222     |
|    |         | 여성 | 2,361   |
| 11 | 기타      | 총계 | 22,741  |
|    |         | 남성 | 9,205   |
|    |         | 여성 | 13,536  |

출처 : 법무부, 「2023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 연보」, 법무부, 2023년.

### 2.1.3.2 한국 내 결혼이민자 지역별 현황

아래[표 2-2]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내 결혼이민자가 거주하는 지역별 현황을 나타낸다. 전체 결혼이민자 수는 172,899명이며, 이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원이 53,85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순으로 많은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전체 결혼이민자의 약 30%를 차지하며, 수도권의 높은 인구 집중도를 반영한다. 특히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도 상당한 수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어 지역적 분포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광주광역시 역시 주요 거주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분포가 특정 도시와 지방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수도권과 주요 지방 도시의 결혼이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2-2] 한국 내 결혼이민자 지역별 현황(2023년)

| 연번 | 시도    | 성별 | 총합계     |
|----|-------|----|---------|
|    |       | 총계 | 172,899 |
|    |       | 남성 | 34,387  |
|    |       | 여성 | 138,512 |
| 1  | 경기도   | 총계 | 53,857  |
|    |       | 남성 | 11,994  |
|    |       | 여성 | 41,863  |
| 2  | 경상남도  | 총계 | 10,895  |
|    |       | 남성 | 2,051   |
|    |       | 여성 | 8,844   |
| 3  | 경상북도  | 총계 | 8,052   |
|    |       | 남성 | 1,106   |
|    |       | 여성 | 6,946   |
| 4  | 광주광역시 | 총계 | 3,842   |
|    |       | 남성 | 649     |
|    |       | 여성 | 3,193   |



|    |         |    |        |
|----|---------|----|--------|
| 5  | 대구광역시   | 총계 | 5,790  |
|    |         | 남성 | 1,000  |
|    |         | 여성 | 4,790  |
| 6  | 대전광역시   | 총계 | 3,481  |
|    |         | 남성 | 498    |
|    |         | 여성 | 2,983  |
| 7  | 부산광역시   | 총계 | 7,515  |
|    |         | 남성 | 1,423  |
|    |         | 여성 | 6,092  |
| 8  | 서울특별시   | 총계 | 27,799 |
|    |         | 남성 | 7,831  |
|    |         | 여성 | 19,968 |
| 9  | 세종특별자치시 | 총계 | 883    |
|    |         | 남성 | 166    |
|    |         | 여성 | 717    |
| 10 | 울산광역시   | 총계 | 3,394  |
|    |         | 남성 | 551    |
|    |         | 여성 | 2,843  |
| 11 | 인천광역시   | 총계 | 12,565 |
|    |         | 남성 | 2,867  |
|    |         | 여성 | 9,698  |
| 12 | 전라남도    | 총계 | 6,777  |
|    |         | 남성 | 568    |
|    |         | 여성 | 6,209  |
| 13 | 전라북도    | 총계 | 5,992  |
|    |         | 남성 | 626    |
|    |         | 여성 | 5,366  |
| 14 | 제주특별자치도 | 총계 | 3,024  |
|    |         | 남성 | 508    |
|    |         | 여성 | 2,516  |
| 15 | 충청남도    | 총계 | 9,311  |
|    |         | 남성 | 1,298  |
|    |         | 여성 | 8,013  |
| 16 | 충청북도    | 총계 | 5,733  |
|    |         | 남성 | 810    |
|    |         | 여성 | 4,923  |
| 17 | 충청북도    | 총계 | 3,989  |
|    |         | 남성 | 441    |
|    |         | 여성 | 3,548  |

출처 : 법무부, 「2023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 연보」, 법무부, 2023년.

### 2.1.3.3 한국 내 결혼이민자 연도별 인원수 현황 (2019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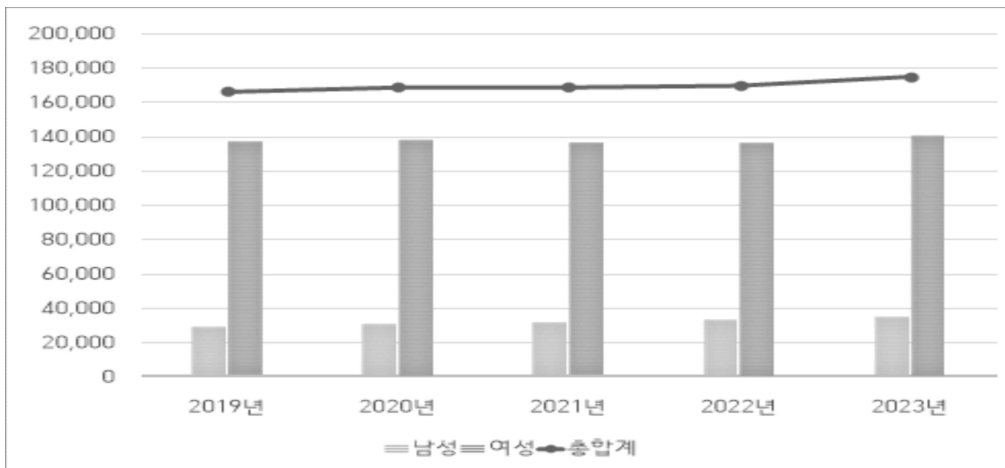
아래[표 2-3]는 최근 5년 동안 한국 내 결혼이민자의 인원수를 나타낸 것으로 총인원은 COVID-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팬데믹 이후 다시 증가세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1]의 그래프이다. 이 자료는 결혼이민자 수의 변화와 팬데믹의 영향을 동시에 보여준다.

[표 2-3] 한국 내 결혼이민자 연도별 현황 (2019년~2023년)

|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총합계 | 166,025 | 168,594 | 168,611 | 169,633 | 174,895 |
| 남성  | 28,931  | 30,716  | 31,943  | 33,392  | 34,526  |
| 여성  | 137,094 | 137,878 | 136,668 | 136,241 | 140,369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 연보」, 법무부, (2019~2023)

[그림 2-1] 한국 내 결혼이민자 연도별 현황 (2019년~2023년)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 연보」, 법무부, (2019~2023)

## 2.2 디지털 활동

### 2.2.1 디지털 활동의 개념과 분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활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로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다. 디지털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분류를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기술이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

디지털 활동은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생성, 공유, 접근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Cheong, Edwards, Goulbourne, and Solomos (2007)은 이러한 디지털 활동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함께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활동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며, 개인에게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Gomez, Perera, Weisinger, and Tobey (2020)은 디지털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개인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거나 경제적 기회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이들은 디지털 활동이 특히 이주민과 같은 집단에서 정보 접근성 및 사회적 통합의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이주민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출신국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거주국의 정보에 접근하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중요한 자원을 획득하게 된다.

디지털 활동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각 분류는 디지털 활동이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디지털 활동의 첫 번째 범주는 정보 접근 및 검색 활동이다. Cheong et al. (2007)은 이를 개인이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정보 접근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학

습, 의료, 금융, 정부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료 정보에 접근하거나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검색하는 행위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보화 능력이 부족한 개인은 정보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개인 간 소통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Tata and Prasad (2015)는 소셜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을 디지털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집단적 소속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예: Facebook, Instagram, Twitter)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도구로 사용되며, 특히 이주민이나 소외 계층이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고 관계망을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는 정보 공유와 협력의 장으로서 공동체의 결속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Perera, Gomez, Weisinger, and Tobey (2013)는 전자상거래와 경제적 활동을 디지털 활동의 주요 범주로 분류하였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이주민이나 취약 계층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분석하였다. 온라인 쇼핑, 디지털 결제 시스템, 원격 근무 등은 현대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디지털 환경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는 비용을 절감하며 더 넓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활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적 독립과 자립을 도모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창의적 표현과 오락 활동의 영역으로도 확장된다. Turkina and Thai (2013)는 디지털 활동이 개인의 창의력을 표현하거나 오락을 즐기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문화적 생산과 소비의 수단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YouTube를 통한 콘텐츠 제작, 개인 블로그 운영,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한 영상 시청은 창의적 및 오락적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여가 시간을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 창의적 결과물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문화 산업과 창의적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디지털 활동은 교육과 학습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Piracha, Tani, and Vaira-Lucero (2016)는 디지털 학습과 교육 활동을 디지털 활동의 필수 요소로 설명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며, 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와 같은 디지털 학습 도구는 누구나 원하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소외된 계층이 교육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학습은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기술 습득과 직업 역량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 활동은 정보 접근, 사회적 관계 형성, 경제 활동 참여, 창의적 표현, 학습 및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활동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기회의 확대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2.2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결혼이민자들의 활용 양상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정보와 통신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허물며, 다양한 집단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통합, 경제적 참여, 그리고 심리적 안정에 이르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Acharya (2016)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보급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참여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디지털 기술이 단순한 정보 접근 도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결혼이민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기술 활용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적응과 사회적 연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Chen (2010)은 인터넷 사용이 이민자의 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Chen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디지털 기술, 특히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립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모국과 연결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언어적·문화적 적응을 시도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결혼이민자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관계망 유지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주요 수단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은 결혼이민자들의 적응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활용 양상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기회의 확대를 지원한다.

디지털 기술의 결혼이민자들의 활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언어 학습은 결혼이민자들의 적응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언어 학습 과정의 혁신을 가져왔다. Crosby (2018)는 디지털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영어 학습 모델과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학습 모델을 연구하며, 디지털 기술이 언어 학습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디지털 문해력이 결혼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직업적 기회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 학습은 결혼이민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하고 언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Jones et al. (2017)은 스마트폰 기반 학습이 결혼이민자의 언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언어 교육에 활용되면서 결혼이민자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언어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언어 학습 앱이나 온라인 강좌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학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경제적,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도구로 활용되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디지털 기술은 결혼이민자가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동시에 모국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erera et al. (2013)은 디지털 기술이 결혼이민자에게 이중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 결혼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새로운 사회에서의 자립과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그룹과 교류하고 정보 공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디지털 기술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활동과 자립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Jacomy et al. (2010)은 결혼이민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결혼이민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결혼이민자들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결혼이민자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Kesharwani (2020)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결혼이민자가 정보 접근과 활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강조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기술적 활용 능력을 넘어서 정보의 평가와 비판적 수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결혼이민자가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구직 정보, 정부 지원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 등에 접근하면 경제적·사회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 2.3 삶의 만족도

### 2.3.1 삶의 만족도 개념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주관적 지표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정의와 측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 개념은 단순한 물질적 요소를 넘어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Fugl-Meyer et al. (2002)는 삶의 만족도를 개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에서 개인의 성취와 기대 간의 일치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즉, 삶의 만족도가 높은 개인은 자신의 현재 상태가 기대하는 삶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삶의 만족도가 단순히 물리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관계가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Baltatescu (2014)는 삶의 만족도를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얻는 주관적 행복감의 총합"으로 정의하며,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과 연결하였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주관적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고 의 만족도가 개인 내면의 기대와 외부 환경의 조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즉,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주변 환경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형성되며, 이는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gelini et al. (2015)는 삶의 만족도를 "삶의 질에 대한 개인적 평가"로 정의하며, 이를 문화적 적응과 연관지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단순한 물질적 풍요나 경제적 상태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Angelini et al. (2015)의 연구는 삶의 만족도가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Berggren et al. (2020)은 삶의 만족도를 "개인이 현재의 삶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감"으로 정의하며, 특히 이주민 집단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이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출신국과 거주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였다. 즉, 이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출신국에서의 경험과 거주국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중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Berggren et al. (2020)은 삶의 만족도가 단일 변수로 측정되기 어려운 복합적 개념임을 지적하며,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삶의 만족도가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 2.3.2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건강 상태, 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지역 및 환경적 요인과 같은 다각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Frijters & Haisken-DeNew (2004)는 경제적 안정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소득 수준과 안정적인 고용 상태가 개인의 전반적인 만족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비교 이론에 근거하여 자신의 소득이 주변인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단순히 절대적인 소득의 크기보다는 상대적 소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Frijters & Haisken-DeNew의 연구는 경제적 불안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함께 다루었으며,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저소득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Helliwell et al. (2009)는 개인이 경험하는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삶

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지역 사회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사회적 신뢰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정서적 지지와 상호작용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다. Helliwell et al. (2009)의 연구 결과는 사회적 고립감이나 소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시사하며, 사회적 연결망의 질이 개인의 행복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활발한 사회적 관계와 지역 사회와의 강한 유대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건강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어 유지될 때 개인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Margolis와 Myrskylä (2013)은 건강 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만성 질환과 같은 지속적인 건강 문제는 삶의 질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Cikrikci와 Odaci (2016)은 메타인지적 자기 인식과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감이 더 높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이들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목표를 스스로 조절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자아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를 제공하며, 이는 긍정적인 삶의 평가로 이어진다.

Jagodzinski (2010)은 문화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동아시아와 유럽 국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이 개인의 만족도 평가에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며,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화합과 조화가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성취와 독립성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Angelini et al. (2017)은 지역적 요인과 환경적 조건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 환경의 질, 지역 인프라의 수준, 그리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주 지역의 환경이 이주민의 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쾌적한 환경과 충분한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될 때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지원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지역 및 환경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건강 상태, 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지역 및 환경적 요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작용하며 삶의 만족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2.3.3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는 일반적인 개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과는 다소 다른 특수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언어 능력과 문화 적응, 사회적 자본, 디지털 정보 접근성 및 활용 능력, 경제적 안정과 직업 기회, 가족 및 배우자 관계, 차별과 사회적 배제 경험, 그리고 정책 지원과 공공 서비스와 같은 요인들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혼이민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영분 외(2021)는 결혼이민자가 거주 국가의 언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구사하는지가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경제적 기회 획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국어 능력은 결혼이민자가 지역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원활하게 적응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결혼이민자는 지역 공동체에서 더 많은 교류를 경험하고 경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언어 장벽이 존재할 경우,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기회 제한이 발생하여 삶의 만족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에게 언어 교육과 문

화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Bourdieu (1986)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할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김효정(2018)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결혼이민자가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같은 이주민 그룹의 경우 사회적 자본은 문화적 배경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디지털 시대에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는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활용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김해란(2024)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결혼이민자가 정보 활용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능력은 결혼이민자들이 공공 서비스 이용, 취업 기회 탐색, 사회적 교류 강화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보화 능력이 부족할 경우 정보격차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디지털 교육과 정보 접근성 개선은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필수적이며, 특히 이주민 대상 정보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제적 안정은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강정한(2014)은 결혼이민자의 고용 상태와 소득 수준이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안정적인 경제적 지위를 확보한 결혼이민자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자아존중감과도 직결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지역 사회의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이민자에게 있어 배우자 및 가족과의 관계는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 중 하나이다. 박윤지와 전명희(2012)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원과 안정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로서의 자아실현과 가족 내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는 결혼이민자에게 가족 내 관계의 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차별적 태도와 사회적 배제는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혜나(2023)는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웰빙과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며, 삶의 만족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김혜나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결혼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가 겪는 사회적 차별을 줄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분과 김은경(2021)은 정책적 지원과 공공 서비스가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교육, 의료, 법적 지원과 같은 공공 서비스는 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법(2008)은 이러한 결혼이민자의 적응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었다. 이 법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책적 지원은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4 사회적 자본

### 2.4.1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주요 이론

사회적 자본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이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관계적 자원으로, 경제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본과 함께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다양한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자원 동원이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Bourdieu (1986)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참여를 통해 획득되는 집단적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과 결합되어 사회적 위치와 계층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현대 사회의 주요 자본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네트워크 내에서 유지되는 관계의 수와 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이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불평등이 재생산된다고 지적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상호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구조를 통해 집단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하였다.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구조적 특성으로서 기능하며, 공동체의 상호 신뢰와 규범이 집단적 행동을 촉진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신뢰와 규범은 개인 간 협력을 이끌어 내며, 이는 집단의 생산성과 사회적 통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적 자본의 주요 이론은 다음과 같다.

Bourdieu (1986)은 사회적 자본을 경제적 자본 및 문화적 자본과 결합된 맥락에서 설명하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 개인이 속한 네트워크 내 관계의 수와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지만, 특정 사회적 계층이나 그룹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사회적 자본을 보유한 상위 계층은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많

은 자원과 기회를 획득하며,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계층 간 격차가 고착화된다. Bourdieu는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복합적이고 계층적 자본임을 강조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공동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적 요소로 설명하였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신뢰와 규범, 정보 유동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구조의 특성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Coleman은 특히 집단적 행동이 가능한 이유를 사회적 자본의 존재에서 찾았으며, 공동체 내에서 상호 신뢰와 규범이 잘 형성될수록 협력적 행동이 촉진된다고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정보 공유는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생산성과 응집력이 높아질 수 있다. Coleman의 이론은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Putnam(1995)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시민적 참여로 정의하며, 이를 사회적 결속과 경제적 발전의 주요 동인으로 분석하였다. Putnam은 사회적 자본이 낮은 지역에서는 경제적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사회적 자본을 “수평적 네트워크”와 “수직적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수평적 네트워크는 개인과 집단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반면, 수직적 네트워크는 권력과 자원의 집중을 통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Granovetter (1973)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약한 연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약한 연결의 강점” 이론을 제시하였다. Granovetter는 강한 연결(가족, 친한 친구와 같은 밀접한 관계)보다 약한 연결(지인,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이 새로운 정보와 기회에 접근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약한 연결은 서로 다른 사회적 그룹이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이 더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취업 기회나 새로운 정보는 친밀한 관계보다는 약한 연결을 통해 더 넓은 범위로 전달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임

을 시사한다.

Lin(2001)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Lin은 개인의 성공에 네트워크의 크기와 자원의 품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이민자와 같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자원이 사회적 이동성과 적응에 기여한다고 설명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획득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이나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게 된다. Lin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단순히 관계의 형성을 넘어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그 정의와 역할이 구체화되고 있다. Bourdieu, Coleman, Putnam, Granovetter, 그리고 Lin과 같은 학자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 활용,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사회적 자본이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실천적 의의가 더욱 부각된다.

#### 2.4.2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사회적 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규범, 상호성, 정보 흐름, 그리고 소속감과 같은 핵심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자본이 작동하고 강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의 각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로서, 상호작용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Coleman(1988)은 신뢰가 개인 간 사회적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신뢰가 존재하는 집단에서는 구성원들 간 협력과 상호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 내에서 개인들



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할 경우, 집단의 생산성과 응집력이 강화된다.

Fukuyama (1995)는 높은 신뢰 수준을 가진 사회가 강한 경제적 성장과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신뢰가 제도적 안정성과 연결되며, 경제적 거래의 비용을 줄이고 협력을 지속하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불신으로 인해 자원 배분과 협력이 저해되며, 이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신뢰는 개인과 집단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또 다른 주요 요소로, 개인과 집단이 관계를 맺고 자원을 교환하는 구조적 기반을 의미한다. Putnam(1995)은 네트워크를 “수평적 네트워크”와 “수직적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수평적 네트워크는 동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는 반면, 수직적 네트워크는 위계적 구조를 통해 권력과 자원의 집중을 특징으로 한다. Putnam은 수평적 네트워크가 보다 강력한 사회적 결속을 이루며, 개인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Granovetter (1973)은 네트워크 내 “약한 연결”이 새로운 정보와 자원 접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강한 연결(가족, 친한 친구 등)과 달리 약한 연결은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며, 새로운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약한 연결은 구직, 학업, 또는 결혼이민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네트워크의 구조와 범위가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규범은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가치와 행동 지침으로, 집단적 행동을 조율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Bourdieu (1986)은 규범이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집단적 행동을 강화한다고 설명하였다. 규범은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지속적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Coleman(1988)은 규범이 상호 이익을 보장하며 집단 내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규범이 잘 확립된 공동체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이 억제되며,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

동체의 발전이 촉진된다. 이러한 규범은 집단 내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사회적 자본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상호성은 개인과 집단 간의 지속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교환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Putnam(2000)은 상호성이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신뢰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상호적 관계를 통해 개인과 집단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이는 사회적 자본이 작동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하였다.

Lin(2001)은 특히 이민자 집단에서 상호성이 네트워크 형성과 자원 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민자들은 상호적 관계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 상호성은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집단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보 흐름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과 집단 간에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Coleman (1988)은 정보 흐름이 신뢰와 네트워크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집단 내 결속이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 흐름은 집단의 의사결정과 목표 달성을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Granovetter(1973)는 약한 연결이 정보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확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강한 연결을 통해서만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효과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보의 원활한 흐름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질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역량 강화와 기회 확장을 지원한다.

소속감은 개인이 집단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정서적 연결과 참여 의식을 의미한다. Fukuyama(1995)는 소속감이 강한 집단이 높은 수준의 협력과 신뢰를 유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집단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낄 때, 협력적 행동과 상호 지원이 더욱 활성화되며, 이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촉진한다. Cheong et al. (2007)은 소속감이 이민자 집단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소속감이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적응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며, 결혼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소속감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커뮤니티는 새로운 형태의 소속감 형성과 사회적 자본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Cheong et al. (2007)은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디지털 신뢰, 디지털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 교환의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며, 이는 전통적 사회적 자본 개념을 보완한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 상호성, 정보 흐름, 그리고 소속감으로 나뉘며, 이들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구성 요소는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내 결속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사회적 기회 확대와 사회적 자본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 2.4.3 결혼이민자 집단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활용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개인과 집단이 네트워크, 신뢰, 규범을 통해 형성하는 자원의 형태를 의미하며, 결혼이민자들의 이주 과정과 정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Nee와 Sanders(1996)는 결혼이민자들이 이주 초기부터 가족 및 지역 사회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민자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결혼이민자들이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다. 배우자는 결혼이민자의 초기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민자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의 기회를 얻게 된다. 배우자의 가족 네트워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이민자는 취업, 주거, 교육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들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한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에서 가족 네트워크는 가장 중요한 지원 체계로 작용한다. Palloni et al. (2001)은 결혼이민자들이 가족 및 친척 네트워크를 통해 초기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는다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주거지 확보, 교육 기회, 취업 정보 등은 가족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되며, 이는 사회적 자본이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Aguilera와 Massey(2003)는 사회적 자본이 결혼이민자의 노동 시장 참여와 임금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를 논의하였다. 이들은 결혼이민자가 배우자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결혼이민자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경제적 자립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은 초기 정착의 지원 체계에서부터 경제적 활동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혼이민자들은 형성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Ryan et al. (2008)은 폴란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 관계와 가족 네트워크가 이민자의 초기 사회 적응과 취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가족 네트워크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이들은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게 된다.

또한, Hagan(1998)은 이민자 네트워크가 교육과 건강 관리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민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적 기회를 탐색하거나 건강 관련 정보를 공유받으며, 이는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의 가족과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사회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경제적, 교육적, 그리고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에서의 삶을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결혼이민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Park et al. (2022)는 결혼이민자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을 확장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Park et al. (2022)는 결혼이민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고, 언어 학습, 경제 활동, 심리적 지지와 같은 다양한 자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였다. 디지털 사회적 자본은 결혼이민자들에게 기존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활용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제약과 과제가 존재한다. Portes (1998)은 이민자 그룹 간 사회적 자본의 비대칭성을 지적하며, 특정 그룹이 사회적 자본 형성과 활용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해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된 자원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이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 네트워크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력 불균형이나 의존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Porte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들이 보다 폭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2.5 선행 연구

### 2.5.1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Lissitsa와 Chachashvili-Bolotin (2016)은 인터넷 사용과 디지털 활용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연결성 증대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다. Kong과 Liu (2023)는 ICT(정보통신기술) 사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사회적 자본에 의해 매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연결성 증대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며, 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Atasever et al. (2022)는 디지털 중독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하며, 자기결정 이론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이 내재적 동기부여를 강화할 경우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지나친 디지털 의존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Zhang et al. (2020)의 연구는 인터넷 사용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교로 인한 부정적 감정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낮은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겪는 비교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Divide와 Jun et al. (2024)는 디지털 기술 사용과 노인층의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며, 디지털 기술의 효과가 개인의 기술적 능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웰빙 증진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Huang et al. (202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의 변환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개인의 SNS 사용 방식과 사회적 연결성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2.5.2 디지털 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Liu et al. (2021)은 디지털 정보 기술이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신뢰, 협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Mandarano et al. (2010)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참여가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며, 협력과 커뮤니티 내 신뢰를 증진한다고 분석했다.

Williams(2011)는 디지털 활동이 도시 지역의 커뮤니티 그룹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Chen(2013)은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Turkina & Thai(2013)는 이민자의 기업가적 성공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과 사회적 자본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활동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Hsiao & Dillahun (2018)은 디지털 정보 통신 기술(ICT)이 이민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 디지털 접근성과 기술 격차가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디지털 자원이 충분히 분배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Zhukovskaya(2021)는 디지털 기술이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상호작용과 디지털 플랫폼이 신뢰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분석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개인 간 신뢰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 신뢰를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Huysman & Wulf(2004)는 정보 기술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며,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 요소인 네트워크, 신뢰, 규범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이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 자본의 창출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위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보면 디지털 활동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활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정보 접근성과 네트워크 구축, 신뢰 형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격차와 같은 제약 요인이 존

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론적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5.3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신뢰, 상호작용, 그리고 규범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중요한 변수로 평가받고 있다 (Putnam, 2000).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 요소는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규범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요소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이다. Takahashi et al. (2011)은 하노이 지역의 근골격계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지역 사회 내 높은 신뢰 수준이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냈다. 또한, 우민, 김승수(2018)는 한국과 대만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사회적 신뢰가 높은 국가에서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Hoogerbrugge & Burger(2018)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가 개인의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Amati et al. (2018)은 친구 네트워크의 크기와 질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Crowley & Walsh (2024)는 유럽 전환 국가를 대상으로 한 다층모텔 분석에서 사회적 규범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Maass et al.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건강 증진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한다. Elgar et al. (2011)은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이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대시키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Inaba et al. (2015)는 일본 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며, 사회적 자본의 유형(결속형 vs 교량형)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김진수, 조우홍 (2023)은 디지털 기술 활용이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증



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Maass et al. (2016)은 사회적 자본이 건강과 삶의 만족도 간의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 정책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민, 김승수(2018)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논문을 고찰해 보면 사회적 자본은 삶의 만족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2.5.4 팬데믹 시기의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변화

COVID-19 팬데믹은 물리적 거리두기와 대면 접촉 제한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었으나,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활용은 이러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디지털 활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일상생활 유지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접근, 사회적 교류, 정보 획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Sohrabi et al. (2022)는 이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팬데믹 동안 디지털 기술이 의료 정보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 보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개인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감염 예방 지침, 증상 대응 방법, 병원 정보 등 의료 관련 정보를 획득하였다. 이는 불안과 혼란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졌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격리된 환자들 역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원격 상담이나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함으로써 고립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Behbahani et al. (2020)은 뉴욕 지역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동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자들은 기존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

으나,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본 서비스와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민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식료품 구매, 원격 의료 서비스, 공공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이러한 활동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권종실 (2023)은 팬데믹 동안 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Takahashi et al. (2011)은 디지털 기술이 물리적 제한을 넘어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Wilson과 Stimpson (2020)은 미국 이민자들이 팬데믹 동안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성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였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상호작용은 디지털 격차가 줄어들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민자들은 팬데믹 동안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가장 두드러지게 경험한 집단 중 하나였다. Rebhun (2021)은 이민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Kiester와 Vasquez-Merino (2021)은 팬데믹 동안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디지털 기술이 정보 접근성과 기회의 균등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디지털 활동이 이민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반면, 디지털 활동의 혜택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모든 집단에 고르게 전달되지 못했다. 최예나(2021)는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낮은 집단에서 팬데믹 동안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 접근성과 활용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 Ⅲ. 연구 방법

### 3.1 연구 방법 개요

디지털 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이용 등의 디지털 활동은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활동과 사회적 자본 형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디지털 활동과 관련된 현상은 거의 모든 사회 계층에서 나타나지만, 본 연구는 특히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결혼이민자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집단은 디지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이 디지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삶의 만족도로 연결하는 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COVID-19 팬데믹이 디지털 활동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COVID-19 팬데믹 시점을 기준으로 디지털 활동의 변화와 관련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 시점에서 디지털 활동의 양상 및 관련 지표들을 비교하여, 이와 관련된 변화가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활동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거의 모든 계층에서 디지털 활동과 사회적 자본 형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는 관련성을 가질 것이지만,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터를 잡고 사는 결혼이민자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 COVID-19 시점 전후로 디지털 활동과 이와 관련된 활동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탐지한다.
4. 해당 시점 전후로 디지털 관련 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관련성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5. 이를 위하여 자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 중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디지털 활동이 COVID-19 시점 주변으로 급격한 변화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6. 변화 시점 전후로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 3.2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 3.2.1 RDD(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분석 모형

첫 번째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 중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 디지털 활동, 사회적 자본이 COVID-19 시점 주변으로 급격한 변화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RDD(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분

석을 실시 하였다. RDD 분석은 Stata 통계패키지 rdrobus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모형의 설정으로 RDD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RDD(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는 특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처치(treatment)가 부여되는 상황에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Imbens, G. W., & Lemieux, T. (2008).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s: A guide to practice. Journal of econometrics, 142(2), 615-6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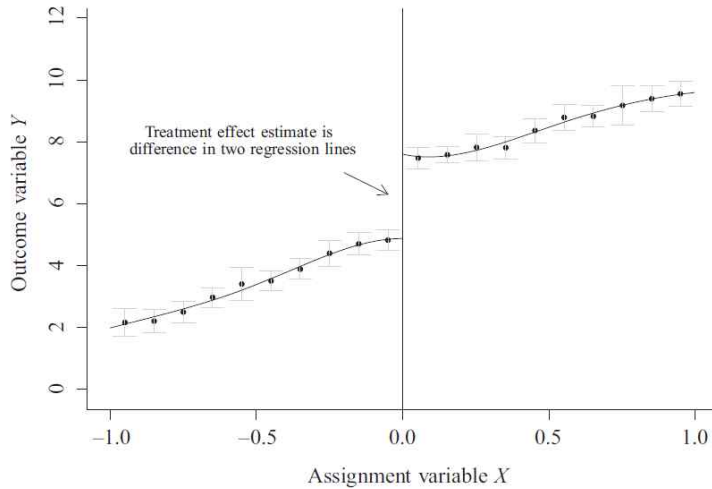
이 모형은 연속된 데이터의 분포가 임계값 주변에서 처치 그룹과 통제 그룹간 차이를 발견하는데 효과적인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RDD의 유형은 Sharp RDD(SRD)와 Fussy RDD(FRD)로 구분된다. SRD는 처치가 임계값을 기준으로 완전히 결정되는 경우에 활용. 즉, 임계값을 기준으로 처치 여부가 0 또는 1로 나누어진다. FRD는 임계값 주변에서 처치의 확률이 불연속적으로 변하지만, 반드시 0과 1로 구분되지는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RDD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계값 근처에서 관측 변수들이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함. 이 가정은 처치의 인과적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처치 변수의 임계값에서 밀도가 연속적이어야 하며, 관측치가 특정 방향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가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RDD 분석은 임계값 주변의 데이터 분포와 결과 변수의 변화를 시각화하여 처치 효과를 확인하며, 임계값 주변의 좁은 범위에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처치 효과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SRD는 임계값 근처의 지역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식 1>과 같이 임계값(cutoff)  $c$ 를 중심으로 관측치의 처리 여부가 명확히 나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begin{aligned} T_i &= 1 (\text{처치 그룹}): X_i \geq c \\ T_i &= 0 (\text{통제 그룹}): X_i < c \end{aligned} \quad \langle \text{식 1} \rangle$$



[그림 3-1] RDD Plot 분석 예시

(그림 출처; Felix Thoemmes, Wang Liao, Ze Jin, The Analysis of the Regression-Discontinuity Design in R,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2017, Vol.42, No.3)

SRD의 주요 목표는 임계값에서 처치 효과  $\tau$ 를 추정하는 것이다.

$$\tau = \lim_{X \rightarrow c^+} E[Y|X=c] - \lim_{X \rightarrow c^-} E[Y|X=c] \quad \langle \text{식 2} \rangle$$

상기 <식 2>에서  $X$ 가  $c$ 를 기준으로 처리 상태만 다르고, 다른 변수는 연속적이라는 가정을 활용하여 효과를 추정한다.

SRD는 임계값 주변 데이터의 로컬 다항식 회귀를 사용하여 결과 변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Y_i = \beta_0 + \beta_1 (X_i - c) + \epsilon_i, \text{ for } |X_i - c| \leq h \quad \langle \text{식 3} \rangle$$

여기서,  $h$ : 대역폭(bandwidth), 임계값 주변 데이터의 범위

$\beta_0$ : 임계값에서의 평균 효과 추정값

$\epsilon_i$ : 오차항

SRD의 회귀 추정에서 대역폭  $h$ 는 결과의 정확성과 편향-분산 균형을 결정한다. 데이터 기반의 최적 대역폭을 선택해 편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3.2.2 매개효과 분석 모형

두번째로 COVID-19 시점에서 변수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된다면 변화 시점 전후의 자료를 사용하여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매개효과 모형 추정은 Stata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매개효과(Mediation Effect)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변수가 중간에 개입하여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분석 기법이다 (Fairchild, A. J., & MacKinnon, D. P. (2009). A general model for testing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Prevention science*, 10, 87-99.).

매개효과는 독립변수(X)와 종속변수(Y) 간의 전체 효과(total effect,  $c$ )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직접효과는 매개변수(M)를 통제했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간접효과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의 영향을 미치는 효과의 곱을 의미한다.

$$c = ab + c' \quad \langle \text{식 4} \rangle$$

여기서,  $c$ : 전체 효과

$ab$ : 간접 효과

$c'$ : 직접 효과

매개효과 분석은 회귀분석 기반의 경로 추정으로 다음 두 가지 단계의 추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식 5>에 대한 추정이다.

$$M = i_1 + \alpha X + e_1 \quad \langle \text{식 5} \rangle$$

이를 통해 독립변수  $X$ 가 매개변수  $M$ 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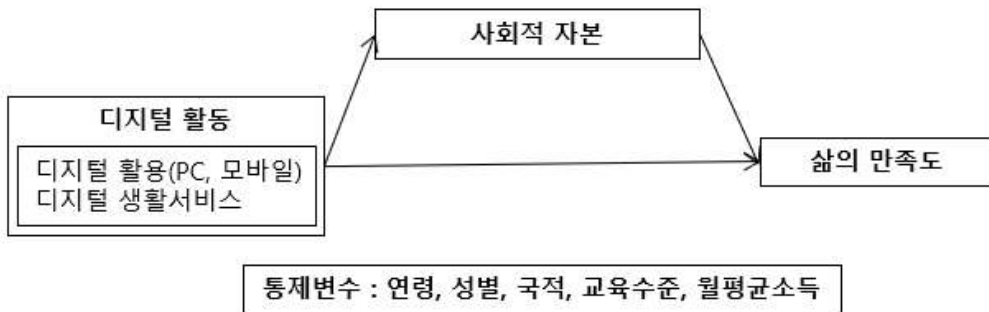
이후, <식 6>과 같은 두 번째 추정을 실시한다.

$$Y = i_2 + c'X + bM + e_2 \quad \langle \text{식 6} \rangle$$

이를 통해,  $M$ 과  $X$ 가  $Y$ 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는데, 이는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a$ 와  $b$ 의 곱의 분산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변수 간의 인과성 순서가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하며, 변수의 선형성 및 정규성이 가정되어야 하며, 변수들 간 독립성도 가정되어야 한다.

매개효과의 연구모형은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매개변수 연구모형

###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 3.3.1 독립변수 : 디지털 활동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한 연구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한 2020년과 2021년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고, 디지털 활동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디지털 활동이란 결혼 이민자가 PC와 모바일을 사용하는 디지털 활용 능력과 디지털 생활서비스 활용을 말한다. 디지털 활용능력 측정은 리커트(Likert)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디지털 생활서비스는 리커트(Likert) 4점 척도(1점. 전혀 이용 안한다 ~ 4점. 자주 이용한다)로 측정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활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3-1] 디지털 활동의 구성항목 별 문항 구성

| 변수   |       |                       | 문항                                                                                                                                                                                                                                                                                                                                                                                                                                                    |
|------|-------|-----------------------|-------------------------------------------------------------------------------------------------------------------------------------------------------------------------------------------------------------------------------------------------------------------------------------------------------------------------------------------------------------------------------------------------------------------------------------------------------|
| 독립변수 | 디지털활동 | 디지털활용능력<br>(pc, 모바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필요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컴퓨터에 설치/삭제/업데이트 할 수 있다.</li> <li>• 나는 PC에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을 스스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li> <li>• 나는 웹 브라우저(크롬, 사파리, 엣지, 웨일 등)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li> <li>• 나는 PC에 다양한 외장기기(디지털카메라, 프린터, 스캐너, USB 외장하드 등)를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다.</li> <li>• 나는 PC에 있는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다.</li> <li>• 나는 PC의 악성코드(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를 검사/치료할 수 있다.</li> <li>• 나는 PC에서 문서(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등을 작성할 수 있다.</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스마트기기에서 디스플레이/소리/보안/알림/입력방법 등의 환경설정을 할 수 있다.</li> <li>• 나는 스마트기기에서 무선 랜(와이파이, 기가 와이파이 포함) 설정을 할 수 있다.</li> <li>• 나는 스마트기기에 있는 파일을 PC로 옮길 수 있다.</li> <li>• 나는 스마트기기에 있는 파일/사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다.</li> <li>• 나는 앱을 스마트기기에 설치/삭제/업데이트할 수 있다.</li> <li>• 나는 스마트기기의 악성코드(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를 검사/치료할 수 있다.</li> <li>• 나는 스마트기기에서 문서(메모장, 워드)를 작성할 수 있다.</li> </ul>                                                |
|      |       | 디지털생활서비스<br>(PC, 모바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정보서비스</li> <li>• 전자상거래 서비스</li> <li>• 금융거래 서비스</li> <li>• 공공 서비스</li> </ul>                                                                                                                                                                                                                                                                                                                               |

### 3.3.2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의 삶의 만족도란 결혼이민자가 삶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말한다. 삶의 만족도 측정은 리커트 4점 척도(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4점. 매우 만족)로 측정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3-2] 삶의 만족도의 구성항목 별 문항 구성

| 변수   |        | 문항                                                                                                                                                                                                                              |
|------|--------|---------------------------------------------------------------------------------------------------------------------------------------------------------------------------------------------------------------------------------|
|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경우에서 내 삶은 내 이상과 가깝다.</li> <li>• 내 삶의 조건들은 매우 우수하다.</li> <li>•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li> <li>• 지금까지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li> <li>• 내 삶을 다시 산다면,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li> </ul> |

### 3.3.3 매개변수 :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이란 결혼이민자가 네트워크 활동을 기반으로 규범, 신뢰, 참여가 형성되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무형의 힘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Williams(2006)의 인터넷 사회적 자본 척도(ISCs)를 활용하여 수정 보완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리커트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3-3] 사회적 자본의 구성항목 별 문항 구성

| 변수   |        | 문항                                                                                                                                                                                                                                                                                                                                                                                                                                                                                                                             |
|------|--------|--------------------------------------------------------------------------------------------------------------------------------------------------------------------------------------------------------------------------------------------------------------------------------------------------------------------------------------------------------------------------------------------------------------------------------------------------------------------------------------------------------------------------------|
| 매개변수 | 사회적 자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 중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li> <li>• 사람들 중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li> <li>• 사람들 중에 긴밀한 사적인 문제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li> <li>• 사람들 중에 나의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li> <li>• 사람들은 내가 불의에 대하여 싸우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li> <li>•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내가 더 큰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된다.</li> <li>•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li> <li>• 나는 기꺼이 커뮤니티 활동에 시간을 보낼 의향이 있다.</li> <li>•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한다.</li> <li>• 교류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한다.</li> </ul> |

## IV. 실증분석 결과

### 4.1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

#### 4.1.1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디지털 정보격차 조사는 시계열적 조사·분석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연간 성과 점검 및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사는 만 7세 이상 일반국민, 만 7~69세 등록 장애인, 만 7~7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만 15세 이상 농어업 종사자, 만 7세 이상 북한 출신 한국국적 취득자, 만 18세 이상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의 전체 표본은 15,000명이고, 이 중 일반국민은 7,000명,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은 각 2,200명,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는 각 7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두 변수 사이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4-1] 분석대상 자료의 구성

| 변수명    | 설명                     |
|--------|------------------------|
| satis  | • 삶의 만족도               |
| usage  | • 디지털 활용 능력            |
| use_pc | • 디지털 활용 능력: PC 활용     |
| use_mo | • 디지털 활용 능력: mobile 활용 |
| dls    | • 디지털 생활 서비스 이용        |
| soc    | • 사회적 자본               |

(여기서 디지털 활용 능력의 하위 요소는 디지털 활용 능력(PC)과 디지털 활

용 능력(모바일)이다. )

분석 대상 자료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다만, 2018년에는 결혼이민자 데이터가 누락되어 자료 구성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각 변수별 자료는 5점 척도로 구성된 다수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변수별 문항을 산술평균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모든 변수는 연도별로 700명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일부 변수에서는 누락된 자료가 존재한다.

분석대상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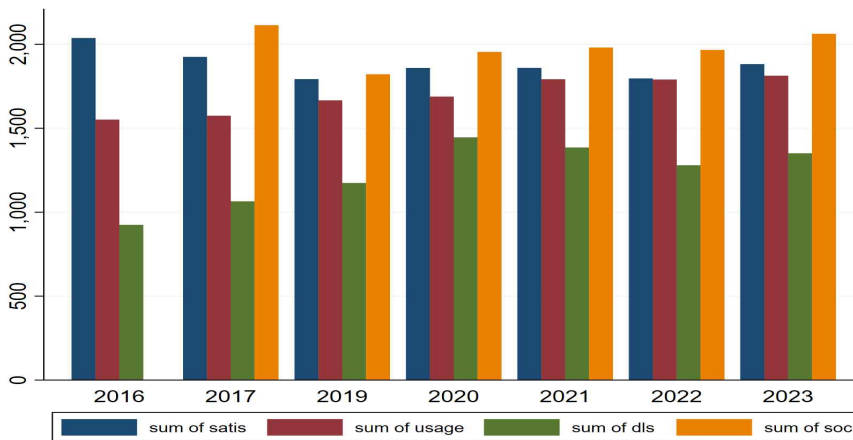
[표 4-2] RDD 분석 데이터 기초통계

| year | 구분   | 삶의 만족도 | 디지털 활동   |               |                |           | 사회적 자본 |
|------|------|--------|----------|---------------|----------------|-----------|--------|
|      |      |        | 디지털 활용능력 | 디지털 활용능력 (pc) | 디지털 활용능력 (모바일) | 디지털 생활서비스 |        |
| 2016 | 개수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520.00    | 0.00   |
|      | 평균   | 2.91   | 2.22     | 2.07          | 2.36           | 1.78      | .      |
|      | 표준편차 | 0.84   | 0.89     | 0.91          | 0.94           | 0.71      | .      |
|      | 왜도   | 3.62   | 0.12     | 0.32          | -0.08          | 2.52      | .      |
|      | 첨도   | 28.78  | 1.96     | 1.96          | 1.92           | 12.80     | .      |
|      | 중위수  | 3.00   | 2.29     | 2.00          | 2.43           | 1.61      | .      |
| 2017 | 개수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539.00    | 700.00 |
|      | 평균   | 2.75   | 2.25     | 2.16          | 2.33           | 1.97      | 3.02   |
|      | 표준편차 | 0.55   | 0.80     | 0.76          | 0.92           | 0.78      | 0.55   |
|      | 왜도   | -0.22  | -0.26    | -0.19         | -0.07          | 0.63      | -0.44  |
|      | 첨도   | 3.71   | 2.22     | 2.26          | 2.01           | 2.68      | 3.59   |
|      | 중위수  | 2.75   | 2.36     | 2.29          | 2.43           | 2.00      | 3.00   |
| 2019 | 개수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567.00    | 700.00 |
|      | 평균   | 2.56   | 2.38     | 2.15          | 2.60           | 2.07      | 2.60   |
|      | 표준편차 | 0.52   | 0.58     | 0.72          | 0.56           | 0.64      | 0.66   |
|      | 왜도   | 0.13   | 0.33     | 0.10          | 0.03           | 0.48      | -0.66  |
|      | 첨도   | 3.00   | 2.99     | 2.57          | 3.29           | 2.70      | 3.33   |
|      | 중위수  | 2.50   | 2.36     | 2.14          | 2.57           | 2.00      | 2.70   |
| 2020 | 개수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682.00    | 700.00 |
|      | 평균   | 2.66   | 2.41     | 2.16          | 2.66           | 2.12      | 2.79   |
|      | 표준편차 | 0.52   | 0.71     | 0.84          | 0.71           | 0.62      | 0.48   |
|      | 왜도   | -0.02  | 0.06     | 0.14          | -0.24          | 0.32      | -0.18  |
|      | 첨도   | 2.71   | 2.49     | 2.11          | 2.81           | 2.16      | 2.59   |
|      | 중위수  | 2.75   | 2.43     | 2.29          | 2.71           | 2.00      | 2.80   |
| 2021 | 개수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649.00    | 700.00 |

|       |      |          |          |          |          |          |          |
|-------|------|----------|----------|----------|----------|----------|----------|
|       | 평균   | 2.66     | 2.56     | 2.34     | 2.77     | 2.13     | 2.83     |
|       | 표준편차 | 0.42     | 0.65     | 0.75     | 0.68     | 0.55     | 0.41     |
|       | 왜도   | -0.18    | -0.54    | -0.41    | -0.69    | 0.48     | -0.59    |
|       | 첨도   | 3.57     | 3.17     | 2.35     | 3.63     | 2.90     | 4.63     |
|       | 중위수  | 2.60     | 2.64     | 2.43     | 2.86     | 2.00     | 2.80     |
| 2022  | 개수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621.00   | 700.00   |
|       | 평균   | 2.57     | 2.56     | 2.28     | 2.83     | 2.06     | 2.81     |
|       | 표준편차 | 0.47     | 0.76     | 0.85     | 0.77     | 0.59     | 0.45     |
|       | 왜도   | -0.18    | -0.36    | -0.08    | -0.79    | 0.27     | -0.73    |
|       | 첨도   | 4.10     | 2.40     | 1.95     | 3.12     | 2.52     | 4.64     |
| 2023  | 개수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628.00   | 700.00   |
|       | 평균   | 2.69     | 2.59     | 2.24     | 2.94     | 2.15     | 2.95     |
|       | 표준편차 | 0.44     | 0.69     | 0.87     | 0.63     | 0.56     | 0.38     |
|       | 왜도   | 0.42     | -0.28    | -0.15    | -0.77    | 0.39     | -0.25    |
|       | 첨도   | 3.63     | 2.25     | 1.79     | 3.63     | 2.71     | 3.66     |
| Total | 개수   | 4,900.00 | 4,900.00 | 4,900.00 | 4,900.00 | 4,206.00 | 4,200.00 |
|       | 평균   | 2.68     | 2.42     | 2.20     | 2.64     | 2.05     | 2.83     |
|       | 표준편차 | 0.57     | 0.75     | 0.82     | 0.79     | 0.64     | 0.51     |
|       | 왜도   | 1.94     | -0.21    | -0.03    | -0.49    | 0.68     | -0.66    |
|       | 첨도   | 24.67    | 2.45     | 2.06     | 2.73     | 4.00     | 4.39     |
|       | 중위수  | 2.63     | 2.50     | 2.29     | 2.71     | 2.00     | 2.90     |

각 변수별 연도별 설문결과를 시각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연도별로 설문결과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생활 서비스 이용(DLS)이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20년부터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삶의 만족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4-1] 연도별·변수별 설문조사 결과

#### 4.1.2 상관관계 분석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 디지털 활용능력(pc), 디지털 활용능력(모바일)를 제외하고는 변수 간 상관성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디지털 활용능력(pc), 디지털 활용능력(모바일)은 디지털 활용능력의 구성 요소이므로 3개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디지털 생활서비스 이용과 디지털 활용능력, 디지털 활용능력(pc) 간 상관관계가 0.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디지털 생활 서비스 이용과 PC 활용 간 관련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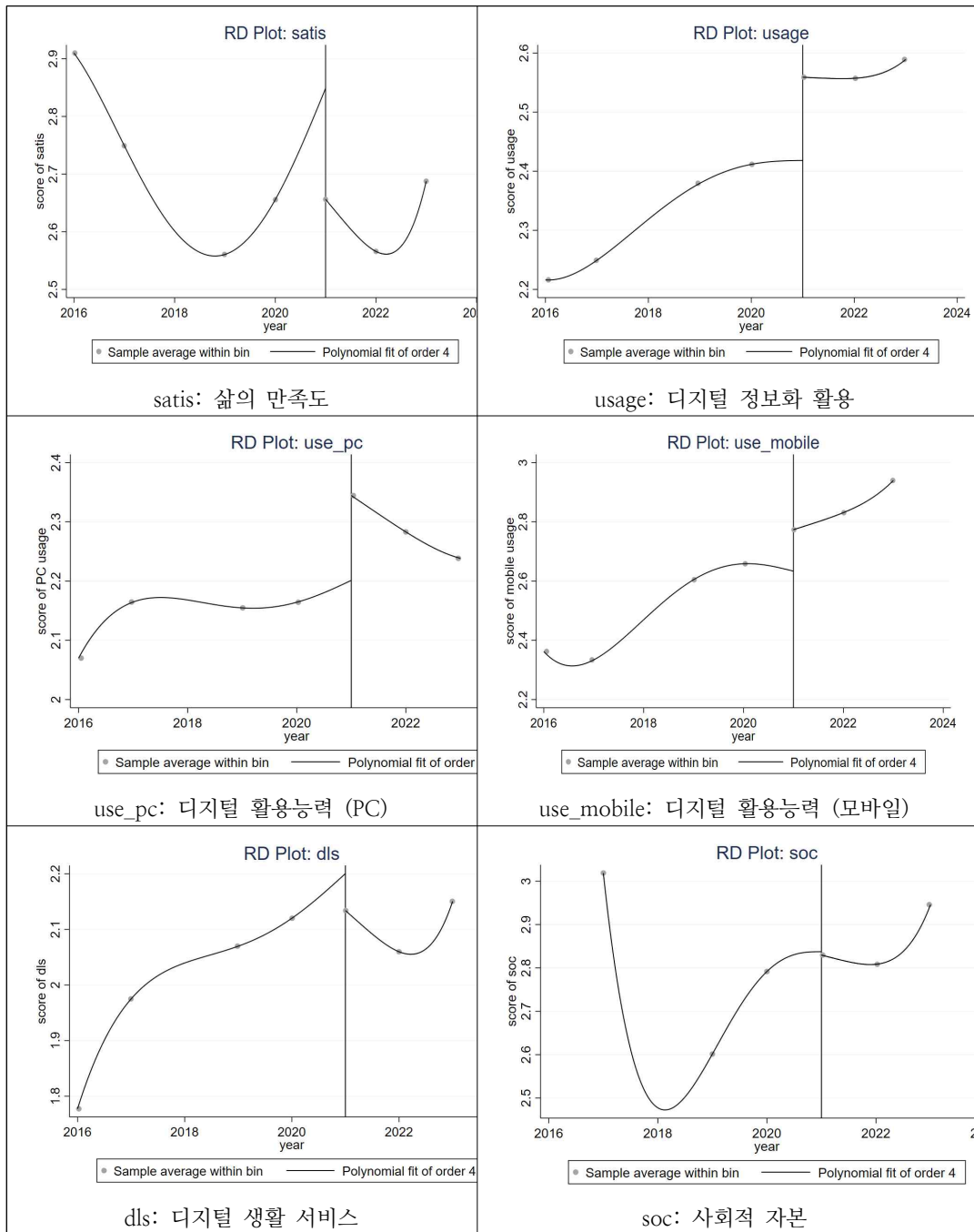
| 변수명           | 삶의 만족도  | 디지털 활동   |              |               |           | 사회적 자본 |
|---------------|---------|----------|--------------|---------------|-----------|--------|
|               |         | 디지털 활용능력 | 디지털 활용능력(pc) | 디지털 활용능력(모바일) | 디지털 생활서비스 |        |
| 삶의 만족도        | 1.00    |          |              |               |           |        |
| 디지털 활용 능력     | 0.24*** | 1.00     |              |               |           |        |
| 디지털 활용능력(pc)  | 0.22*** | 0.93***  | 1.00         |               |           |        |
| 디지털 활용능력(모바일) | 0.22*** | 0.92***  | 0.72***      | 1.00          |           |        |
| 디지털 생활서비스     | 0.27*** | 0.51***  | 0.49***      | 0.42***       | 1.00      |        |
| 사회적 자본        | 0.42*** | 0.37***  | 0.34***      | 0.34***       | 0.28***   | 1.00   |

obs = 3,686. p-value \* < 0.10, \*\* < 0.05, \*\*\* < 0.01

## 4.2 실증분석 결과

### 4.2.1. RDD 회귀분석 결과

RDD 분석은 Stata 통계패키지 rdrobus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RDD 플롯을 통한 시각화 분석 결과는 [그림 4-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4-2] 변수별 RDD 플롯

RDD 플롯 중 연도별 표시된 점은 설문결과에 대한 평균을 의미한다.

실제 RDD 플롯은 연도별로 시행하였는데, 이 중 2021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플롯에서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불연속 지점이 포착된다. 이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활용능력과 디지털 활용능력(pc)에서 2020년과 2021년 불연속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활용능력(모바일)도 상대적으로 불연속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

[표 4-4]에서 RDD 회귀분석 변수별 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 적합성 결과, cutoff를 중심으로 좌·우 모두 편향성이 나타나지 않아 변수별 각 모형별 추정의 적합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표 4-4] RDD 회귀분석 변수별 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

| 변수명       |                   | cutoff | obs       |            | BW bias   |            |
|-----------|-------------------|--------|-----------|------------|-----------|------------|
|           |                   |        | Left of c | Right of c | Left of c | Right of c |
| 삶의 만족도    |                   | 2021   | 2800      | 2100       | 5.000     | 5.000      |
| 디지털<br>활동 | 디지털 활용능력          | 2021   | 2800      | 2100       | 5.000     | 5.000      |
|           | 디지털 활용능력<br>(pc)  | 2021   | 2800      | 2100       | 5.000     | 5.000      |
|           | 디지털 활용능력<br>(모바일) | 2021   | 2800      | 2100       | 5.000     | 5.000      |
|           | 디지털 생활서비스         | 2021   | 2308      | 1898       | 5.000     | 5.000      |
| 사회적 자본    |                   | 2021   | 2100      | 2100       | 5.000     | 5.000      |

RDD 회귀분석 계수는 임계기준 연도를 중심으로 좌우 변수 값의 차이를 의미한다. 변수별 RDD 회귀분석 결과는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다. RDD 회귀분석 추정 결과 중 회귀계수를 변수별로 표시한 것이다.

[표 4-5] RDD 회귀분석 변수별 결과

| 변수명       |                   | Coef.  | z      | p-value | cutoff |
|-----------|-------------------|--------|--------|---------|--------|
| 삶의 만족도    |                   | 0.029  | 0.994  | 0.320   | 2021년  |
| 디지털<br>활동 | 디지털 활용능력          | 0.085  | 2.032  | 0.042   |        |
|           | 디지털 활용능력<br>(pc)  | 0.180  | 3.751  | 0.000   |        |
|           | 디지털 활용능력<br>(모바일) | -0.011 | -0.249 | 0.803   |        |
|           | 디지털 생활서비스         | -0.055 | -1.452 | 0.147   |        |
| 사회적 자본    |                   | 0.146  | 5.299  | 0.000   |        |

분석 결과, 디지털 활용능력, 디지털 활용능력(pc), 사회적 자본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RDD 플롯과 다르게 RDD 회귀분석 결과는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며, 통계적 유의성도 1% 미만 수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사회적 자본의 격차가 크게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의 결과는 2019년 말 발생한 COVID-19 팬데믹이 2020년에 만연해지면서 사회적인 고립과 더불어 디지털 활용 능력 및 사회적 자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2021년 전·후로 디지털 활용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양 변수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2020년 및 2021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 4.2.2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모형 분석 결과

상기 RDD 분석 결과에서 디지털 정보 활용수준과 사회적 자본 수준이 2021년을 기준으로 과거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20년 및 2021년을 구분하여 매개효과 모형 추정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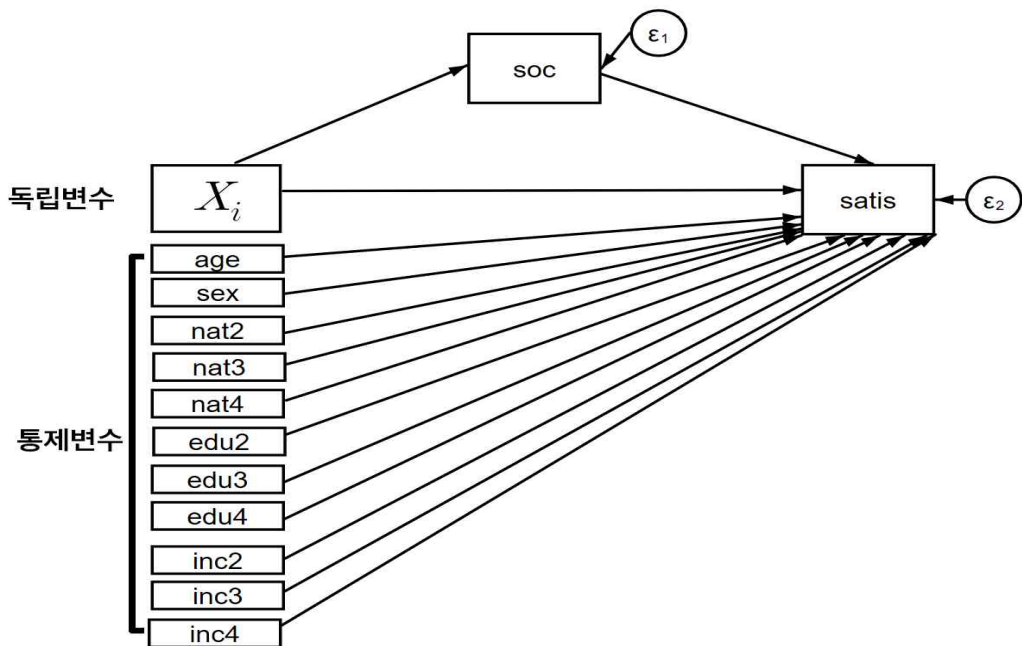
이때, 독립변수는 디지털 생활 서비스 이용(dls), 디지털 활용 능력(usage), 디지털 활용 능력: PC(use\_pc), 디지털 활용 능력: 모바일(use\_mo)로 설정된

각각의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며, 이 독립변수가 삶의 만족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회귀 모형이 기본 모형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회귀 모형 내 통제변수로는 연령(age), 국적(nat), 교육수준(edu), 월평균소득(inc)을 설정하였음.

한편, 독립변수  $X_i$ 와 종속변수 간 매개변수를 사회적 자본(soc)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디지털 활용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 4.2.2.1 통제변수를 포함한 매개변수 연구모형



[그림 4-3] 매개변수 모형 도식

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표 4-6]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4-6] 매개효과 모형 변수 구성

| 구 분           | 변수명                            |              | 설 명           | 비 고               |
|---------------|--------------------------------|--------------|---------------|-------------------|
| 종속변수          | satis                          |              | 삶의 만족도        | 연속변수              |
| 독립변수( $X_1$ ) | 디지털 활동<br>(digital activities) | dls          | 디지털 생활 서비스 이용 |                   |
| 독립변수( $X_2$ ) |                                | usage        | 디지털 활용능력      |                   |
| 독립변수( $X_3$ ) |                                | use_pc       | 디지털 활용능력(pc)  |                   |
| 독립변수( $X_3$ ) |                                | use_mo       | 디지털 활용능력(mo)  |                   |
| 매개변수          | soc                            |              | 사회적 자본        |                   |
| 통제변수          | age                            |              | 연령            |                   |
|               | sex                            | 0: 남성, 1: 여성 | 성별            |                   |
|               | nat2                           | 중국 (조선족)     | 국적 (더미변수)     | 기준더미:<br>중국(한족)   |
|               | nat3                           | 베트남/필리핀      |               |                   |
|               | nat4                           | 기타국적         |               |                   |
|               | edu2                           | 중졸           | 교육수준 (더미변수)   | 기준더미:<br>초등졸 이하   |
|               | edu3                           | 고졸           |               |                   |
|               | edu4                           | 대졸 이상        |               |                   |
|               | inc2                           | 300~399만원    | 월평균소득 (더미변수)  | 기준더미:<br>299만원 이하 |
|               | inc3                           | 400~499만원    |               |                   |
|               | inc4                           | 500만원 이상     |               |                   |

#### 4.2.2.2 주요 변수의 연도별 기술 통계

매개효과 모형의 추정치는 2020년 및 2021년 각각 시행되며, 이에 따른 연속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표 4-7]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4-7] 주요 변수의 연도별 기술 통계

| year  | 구분   | 삶의<br>만족도 | 디지털 활동      |                     |                      |              | 사회적<br>자본 | 연령       |
|-------|------|-----------|-------------|---------------------|----------------------|--------------|-----------|----------|
|       |      |           | 디지털<br>활용능력 | 디지털<br>활용능력<br>(pc) | 디지털<br>활용능력<br>(모바일) | 디지털<br>생활서비스 |           |          |
| 2020  | 개수   | 700       | 700         | 700                 | 700                  | 682          | 700       | 700      |
|       | 평균   | 2.66      | 2.41        | 2.16                | 2.66                 | 2.12         | 2.79      | 40.39    |
|       | 표준편차 | 0.52      | 0.71        | 0.84                | 0.71                 | 0.62         | 0.48      | 9.52     |
|       | 왜도   | -0.02     | 0.06        | 0.14                | -0.24                | 0.32         | -0.18     | 0.41     |
|       | 첨도   | 2.71      | 2.49        | 2.11                | 2.81                 | 2.16         | 2.59      | 2.49     |
|       | 중위수  | 2.75      | 2.43        | 2.29                | 2.71                 | 2.00         | 2.80      | 39.00    |
| 2021  | 개수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649.00       | 700.00    | 700.00   |
|       | 평균   | 2.66      | 2.56        | 2.34                | 2.77                 | 2.13         | 2.83      | 37.93    |
|       | 표준편차 | 0.42      | 0.65        | 0.75                | 0.68                 | 0.55         | 0.41      | 7.83     |
|       | 왜도   | -0.18     | -0.54       | -0.41               | -0.69                | 0.48         | -0.59     | 0.24     |
|       | 첨도   | 3.57      | 3.17        | 2.35                | 3.63                 | 2.90         | 4.63      | 2.66     |
|       | 중위수  | 2.60      | 2.64        | 2.43                | 2.86                 | 2.00         | 2.80      | 38.00    |
| Total | 개수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331.00     | 1,400.00  | 1,400.00 |
|       | 평균   | 2.66      | 2.49        | 2.25                | 2.72                 | 2.13         | 2.81      | 39.16    |
|       | 표준편차 | 0.48      | 0.69        | 0.80                | 0.70                 | 0.58         | 0.44      | 8.80     |
|       | 왜도   | -0.08     | -0.22       | -0.13               | -0.46                | 0.38         | -0.36     | 0.42     |
|       | 첨도   | 3.10      | 2.68        | 2.14                | 3.13                 | 2.47         | 3.36      | 2.75     |
|       | 중위수  | 2.60      | 2.57        | 2.43                | 2.71                 | 2.00         | 2.80      | 38.00    |

#### 4.2.2.3 더미변수별 기초 통계량

더미변수별 기초 통계량은 [표 4-8]에 제시된 것과 같다.

더미변수 통계량 확인 결과, 성별(sex) 및 교육수준(edu)은 한쪽으로 쏠린 것으로 확인된다.

[표 4-8] 더미변수 기초 통계량

| 연도    | 구 분   | 변수명  | 내 용       | Freq. | Percent |
|-------|-------|------|-----------|-------|---------|
| 2020  | 성별    | sex  | 남성        | 155   | 22.14%  |
|       |       |      | 여성        | 545   | 77.86%  |
|       | 국적    | -    | 중국(한족)    | 109   | 15.57%  |
|       |       | nat2 | 중국(조선족)   | 212   | 30.29%  |
|       |       | nat3 | 베트남/필리핀   | 112   | 16.00%  |
|       |       | nat4 | 기타 국적     | 267   | 38.14%  |
|       | 교육수준  | -    | 초등졸 이하    | 3     | 0.56%   |
|       |       | edu2 | 중졸        | 23    | 4.28%   |
|       |       | edu3 | 고졸        | 406   | 75.46%  |
|       |       | edu4 | 대졸 이상     | 106   | 19.70%  |
|       | 월평균소득 | -    | 299만원 이하  | 132   | 18.86%  |
|       |       | inc2 | 300~399만원 | 118   | 16.86%  |
|       |       | inc3 | 400~499만원 | 191   | 27.29%  |
|       |       | inc4 | 500만원 이상  | 259   | 37.00%  |
| 2021  | 성별    | sex  | 남성        | 137   | 19.57%  |
|       |       |      | 여성        | 563   | 80.43%  |
|       | 국적    | -    | 중국(한족)    | 130   | 18.57%  |
|       |       | nat2 | 중국(조선족)   | 155   | 22.14%  |
|       |       | nat3 | 베트남/필리핀   | 214   | 30.57%  |
|       |       | nat4 | 기타 국적     | 201   | 28.71%  |
|       | 교육수준  | -    | 초등졸 이하    | 1     | 0.17%   |
|       |       | edu2 | 중졸        | 13    | 2.26%   |
|       |       | edu3 | 고졸        | 402   | 70.03%  |
|       |       | edu4 | 대졸 이상     | 158   | 27.53%  |
|       | 월평균소득 | -    | 299만원 이하  | 146   | 20.86%  |
|       |       | inc2 | 300~399만원 | 257   | 36.71%  |
|       |       | inc3 | 400~499만원 | 195   | 27.86%  |
|       |       | inc4 | 500만원 이상  | 102   | 14.57%  |
| total | 성별    | sex  | 남성        | 292   | 20.86%  |
|       |       |      | 여성        | 1,108 | 79.14%  |
|       | 국적    | -    | 중국(한족)    | 239   | 17.07%  |
|       |       | nat2 | 중국(조선족)   | 367   | 26.21%  |
|       |       | nat3 | 베트남/필리핀   | 326   | 23.29%  |
|       |       | nat4 | 기타 국적     | 468   | 33.43%  |
|       | 교육수준  | -    | 초등졸 이하    | 4     | 0.36%   |
|       |       | edu2 | 중졸        | 36    | 3.24%   |
|       |       | edu3 | 고졸        | 808   | 72.66%  |
|       |       | edu4 | 대졸 이상     | 264   | 23.74%  |
|       | 월평균소득 | -    | 299만원 이하  | 278   | 19.86%  |
|       |       | inc2 | 300~399만원 | 375   | 26.79%  |
|       |       | inc3 | 400~499만원 | 386   | 27.57%  |
|       |       | inc4 | 500만원 이상  | 361   | 25.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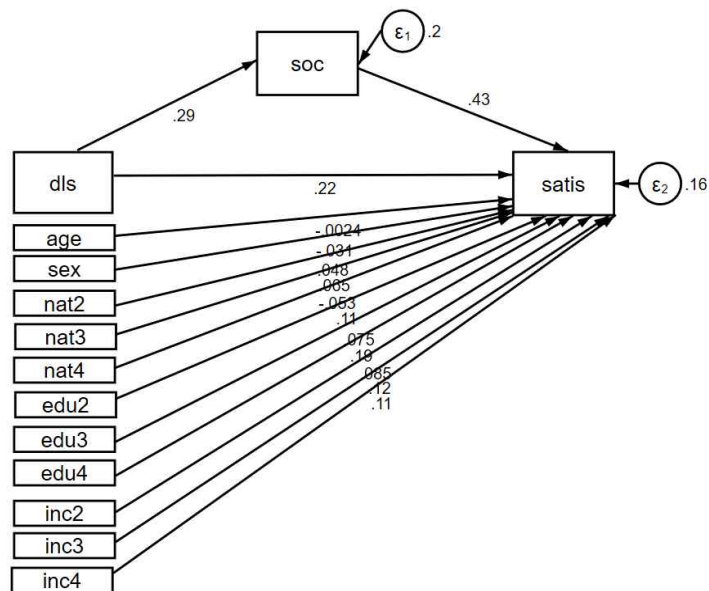
### 4.3 매개 모형 추정 결과

매개효과 모형 추정은 Stata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 4.3.1 매개 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생활 서비스)

독립변수를 디지털 생활 서비스(dls)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각각 2020년과 2021년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생활 서비스(dls)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 4.3.1.1 매개 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dls / 2020년)



[그림 4-4]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 디지털 생활 서비스 / 2020년)

[표 4-9]는 2020년 기준 디지털 생활 서비스(dls)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디지털 생활 서비스는 0.293의 계수값을 가지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사회적 자본은 0.431의 계수값을 나타내며, 디지털 생활 서비스는 0.215를 나타내고, 두 변수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입 3의 계수값은 0.122로 확인되며, 수입 4는 0.108로 각각 5% 및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9]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생활 서비스 / 2020년)

Number of obs = 533

LR test of model vs. saturated:  $\chi^2(11) = 33.06$

Estimation method: 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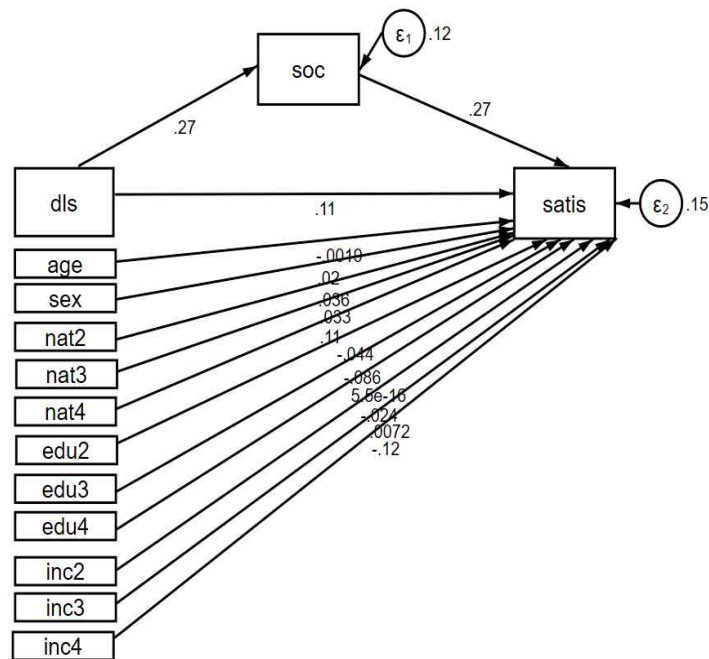
Prob >  $\chi^2 = 0.0005$

Log likelihood = -3,695.5114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Coef.  | z     | p-value |
|--------|-----------|--------|-------|---------|
| 사회적 자본 | 디지털 생활서비스 | 0.293  | 9.27  | 0.000   |
|        | cons      | 2.174  | 31.57 | 0.000   |
| 삶의 만족도 | 사회적 자본    | 0.431  | 10.66 | 0.000   |
|        | 디지털 생활서비스 | 0.215  | 6.47  | 0.000   |
|        | 연령        | -0.002 | -1.14 | 0.254   |
|        | 성별        | -0.031 | -0.32 | 0.752   |
|        | 국적2       | 0.048  | 0.87  | 0.386   |
|        | 국적3       | 0.065  | 1.05  | 0.292   |
|        | 국적4       | -0.053 | -0.99 | 0.324   |
|        | 교육수준2     | 0.107  | 0.42  | 0.677   |
|        | 교육수준3     | 0.075  | 0.31  | 0.760   |
|        | 교육수준4     | 0.187  | 0.75  | 0.452   |
|        | 월평균소득2    | 0.085  | 1.37  | 0.171   |
|        | 월평균소득3    | 0.122  | 2.13  | 0.033   |
|        | 월평균소득4    | 0.108  | 1.94  | 0.053   |
|        | cons      | 0.932  | 3.26  | 0.001   |



#### 4.3.1.2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생활 서비스 / 2021년)



[그림 4-5]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 디지털 생활 서비스 / 2021년)

[표 4-10]은 2021년 기준 디지털 생활 서비스(dls)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디지털 생활 서비스는 0.266의 계수값을 가지며 1% 유의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가졌다.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사회적 자본은 0.274, 디지털 생활 서비스는 0.107로 확인되며, 2020년에 비해 계수값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국적 4, 교육수준 3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COVID 시기를 거치면서 디지털 생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회적 자본 확보 및 삶의 만족도의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0]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생활 서비스 / 2021년)

Number of obs = 529

LR test of model vs. saturated: chi2(11) = omitted

Estimation method: ml

Prob > chi2 = omit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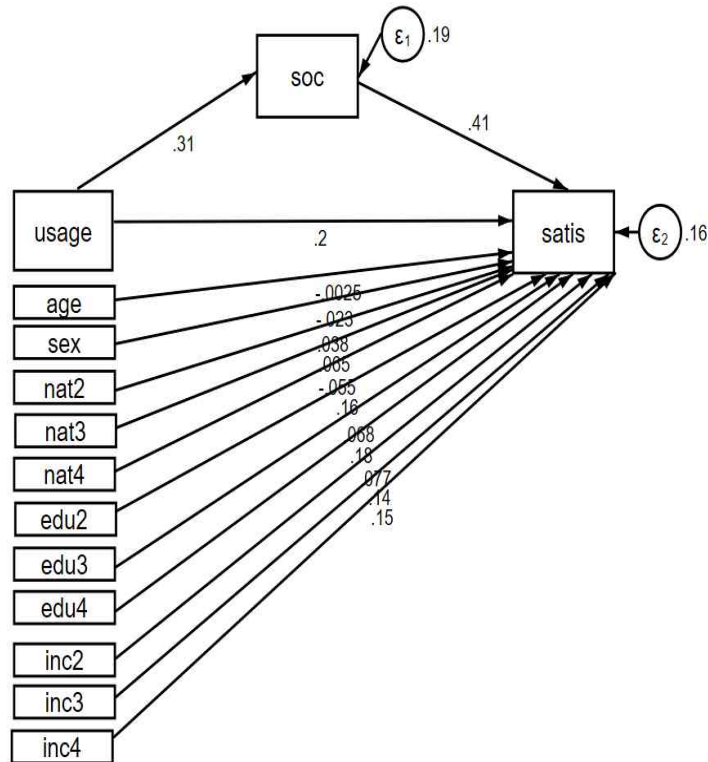
Log likelihood = -4762.122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Coef.  | z     | p-value |
|--------|-----------|--------|-------|---------|
| 사회적 자본 | 디지털 생활서비스 | 0.266  | 9.67  | 0.000   |
|        | cons      | 2.286  | 37.72 | 0.000   |
| 삶의 만족도 | 사회적 자본    | 0.274  | 5.68  | 0.000   |
|        | 디지털 생활서비스 | 0.107  | 3.22  | 0.001   |
|        | 연령        | -0.002 | -0.89 | 0.375   |
|        | 성별        | 0.020  | 0.22  | 0.830   |
|        | 국적2       | 0.036  | 0.86  | 0.390   |
|        | 국적3       | 0.033  | 0.92  | 0.359   |
|        | 국적4       | 0.107  | 2.91  | 0.004   |
|        | 교육수준2     | -0.044 | -0.38 | 0.706   |
|        | 교육수준3     | -0.086 | -2.36 | 0.018   |
|        | 교육수준4     | 0.000  | 0.00  | 1.000   |
|        | 월평균소득2    | -0.024 | -0.70 | 0.486   |
|        | 월평균소득3    | 0.007  | 0.20  | 0.845   |
|        | 월평균소득4    | -0.119 | -2.59 | 0.010   |
|        | cons      | 1.758  | 9.73  | 0.000   |

#### 4.3.2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

독립변수를 디지털 활용 능력(usage)으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각각 2020년과 2021년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활용 능력(usage)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 4.3.2.1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 / 2020년)



[그림 4-6]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 / 2020년)

[표 4-11]은 2020년 기준 디지털 활용 능력(usage)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독립변수를 디지털 활용 능력(usage)으로 설정한 모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디지털 활용능력은 0.308의 계수값을 나타냈으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사회적 자본 및 디지털 활용능력은 각각 0.409 및 0.199의 계수값을 가지며,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을 가졌다. 또한, 월평균소득3 및 월평균소득4도 0.141 및 0.147로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었다.

[표 4-11]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 / 2020년)

Number of obs = 538

LR test of model vs. saturated:  $\chi^2(11) = 3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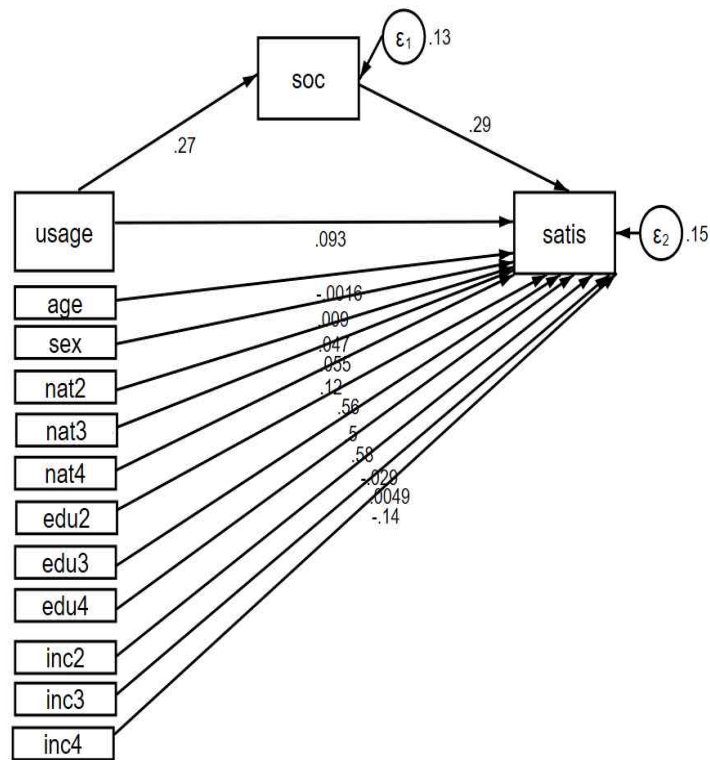
Estimation method: ml

Prob >  $\chi^2 = 0.0012$

Log likelihood = -3784.8724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Coef.  | z     | p-value |
|--------|----------|--------|-------|---------|
| 사회적 자본 | 디지털 활용능력 | 0.308  | 11.24 | 0.000   |
|        | cons     | 2.055  | 30.43 | 0.000   |
| 삶의 만족도 | 사회적 자본   | 0.409  | 9.89  | 0.000   |
|        | 디지털 활용능력 | 0.199  | 6.66  | 0.000   |
|        | 연령       | -0.002 | -1.23 | 0.219   |
|        | 성별       | -0.023 | -0.24 | 0.812   |
|        | 국적2      | 0.038  | 0.69  | 0.489   |
|        | 국적3      | 0.065  | 1.05  | 0.294   |
|        | 국적4      | -0.055 | -1.03 | 0.304   |
|        | 교육수준2    | 0.157  | 0.61  | 0.543   |
|        | 교육수준3    | 0.068  | 0.28  | 0.781   |
|        | 교육수준4    | 0.176  | 0.71  | 0.478   |
|        | 월평균소득2   | 0.077  | 1.25  | 0.212   |
|        | 월평균소득3   | 0.141  | 2.47  | 0.013   |
|        | 월평균소득4   | 0.147  | 2.66  | 0.008   |
|        | cons     | 0.954  | 3.35  | 0.001   |

#### 4.3.2.2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 / 2021년)



[그림 4-7]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 / 2021년)

[표 4-12]는 2021년 기준 디지털 활용 능력(usage)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모형에서도 디지털 활용능력은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 모두를 대상으로 유의미한 계수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계수값의 강도가 2020년에 비하여 약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국적4 변수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2]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 / 2021년)

Number of obs = 574

LR test of model vs. saturated: chi2(11) = 22.12

Estimation method: ml

Prob > chi2 = 0.0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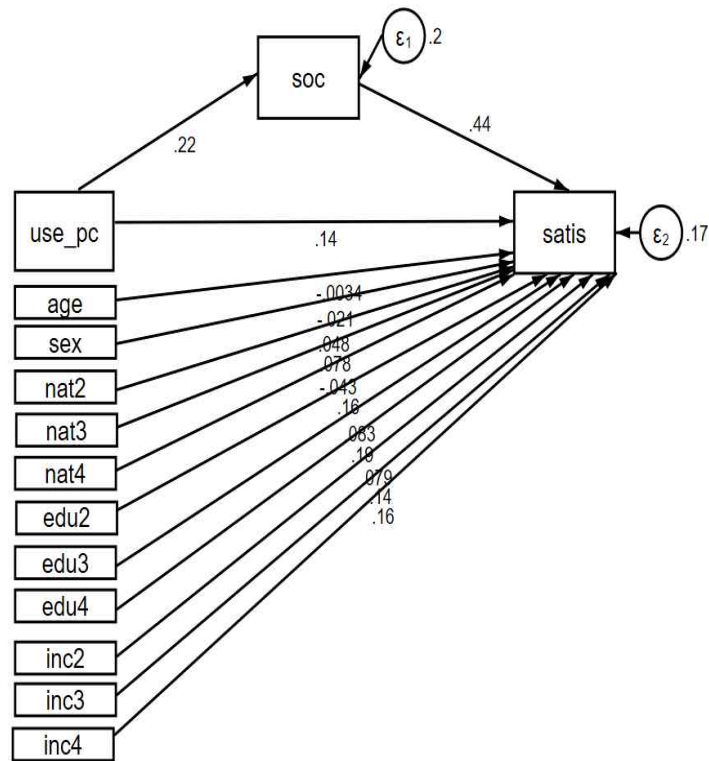
Log likelihood = -3358.4489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Coef.  | z     | p-value |
|--------|----------|--------|-------|---------|
| 사회적 자본 | 디지털 활용능력 | 0.272  | 11.62 | 0.000   |
|        | cons     | 2.143  | 35.23 | 0.000   |
| 삶의 만족도 | 사회적 자본   | 0.294  | 6.40  | 0.000   |
|        | 디지털 활용능력 | 0.093  | 2.91  | 0.004   |
|        | 연령       | -0.002 | -0.69 | 0.488   |
|        | 성별       | 0.009  | 0.09  | 0.925   |
|        | 국적2      | 0.047  | 0.90  | 0.367   |
|        | 국적3      | 0.055  | 1.15  | 0.250   |
|        | 국적4      | 0.116  | 2.32  | 0.020   |
|        | 교육수준2    | 0.555  | 1.35  | 0.177   |
|        | 교육수준3    | 0.503  | 1.26  | 0.206   |
|        | 교육수준4    | 0.577  | 1.44  | 0.149   |
|        | 월평균소득2   | -0.029 | -0.65 | 0.515   |
|        | 월평균소득3   | 0.005  | 0.10  | 0.919   |
|        | 월평균소득4   | -0.136 | -2.26 | 0.024   |
|        | cons     | 1.092  | 2.45  | 0.014   |

#### 4.3.3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pc))

독립변수를 디지털 활용 능력(pc)(use\_pc)으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각각 2020년과 2021년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활용 능력(pc)(use\_pc)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 4.3.3.1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pc) / 2020년)



[그림 4-8]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pc) / 2020년)

[표 4-13]는 2020년 기준 디지털 활용 능력(pc)(use\_pc)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디지털 활용 능력(pc)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매개 모형에서도 상기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2020년 기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디지털 활용능력(pc)의 계수값은 0.223으로 확인되며,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계수값은 0.139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자본의 계수값은 0.440으로 확인되었다.

[표 4-13]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pc) / 2020년)

Number of obs = 538

LR test of model vs. saturated:  $\chi^2(11) = 35.24$

Estimation method: 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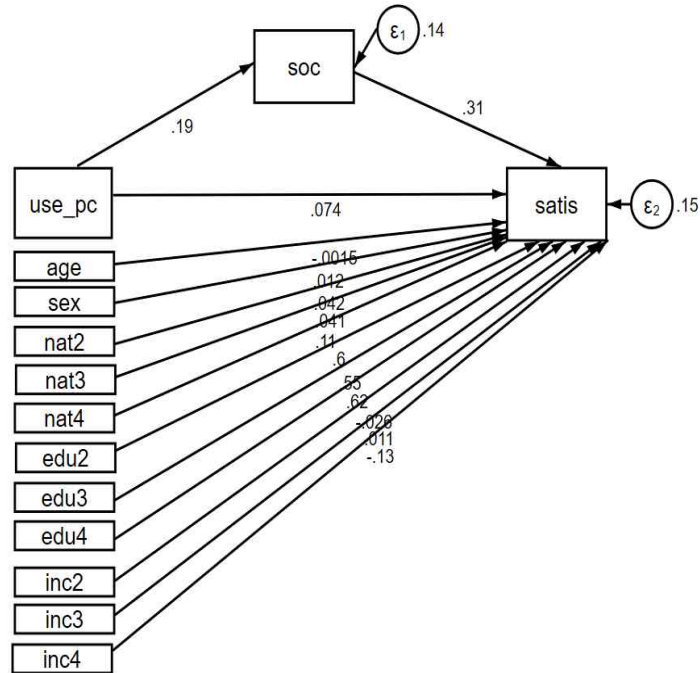
Prob >  $\chi^2 = 0.0002$

Log likelihood = -3905.4571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Coef.  | z     | p-value |
|--------|--------------|--------|-------|---------|
| 사회적 자본 | 디지털 활용능력(pc) | 0.223  | 9.43  | 0.000   |
|        | cons         | 2.314  | 43.30 | 0.000   |
| 삶의 만족도 | 사회적 자본       | 0.440  | 10.79 | 0.000   |
|        | 디지털 활용능력(pc) | 0.139  | 5.68  | 0.000   |
|        | 연령           | -0.003 | -1.68 | 0.093   |
|        | 성별           | -0.021 | -0.21 | 0.836   |
|        | 국적2          | 0.048  | 0.88  | 0.380   |
|        | 국적3          | 0.078  | 1.25  | 0.212   |
|        | 국적4          | -0.043 | -0.80 | 0.424   |
|        | 교육수준2        | 0.155  | 0.60  | 0.552   |
|        | 교육수준3        | 0.083  | 0.34  | 0.737   |
|        | 교육수준4        | 0.191  | 0.76  | 0.447   |
|        | 월평균소득2       | 0.079  | 1.26  | 0.208   |
|        | 월평균소득3       | 0.145  | 2.51  | 0.012   |
|        | 월평균소득4       | 0.156  | 2.77  | 0.006   |
|        | cons         | 1.052  | 3.68  | 0.000   |



#### 4.3.3.2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pc) / 2021년)



[그림 4-9]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pc) / 2021년)

[표 4-14]은 2021년 기준 디지털 활용 능력(pc)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2021년 추정 결과는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디지털 활용능력(pc)는 0.192의 계수값을 가지며,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자본 0.310, 디지털 활용능력(pc) 0.074의 계수값을 가진다.

이는 전반적으로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의 계수값이 2021년에 감소하는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4]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pc) / 2021년)

Number of obs = 574

LR test of model vs. saturated:  $\chi^2(11) = 13.82$

Estimation method: ml

Prob >  $\chi^2 = 0.2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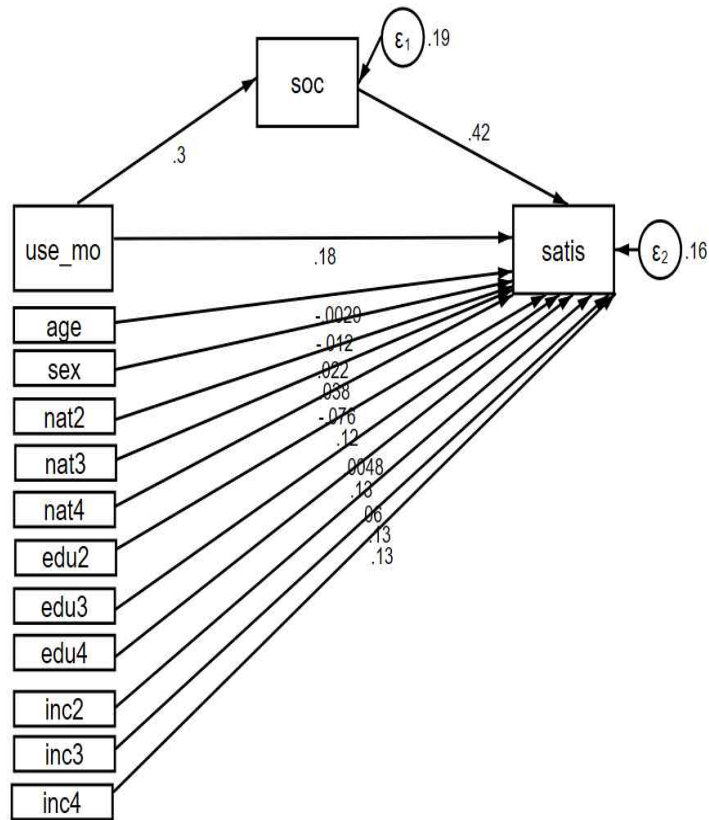
Log likelihood = -3473.1478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Coef.  | z     | p-value |
|--------|--------------|--------|-------|---------|
| 사회적 자본 | 디지털 활용능력(pc) | 0.192  | 9.16  | 0.000   |
|        | cons         | 2.388  | 47.21 | 0.000   |
| 삶의 만족도 | 사회적 자본       | 0.310  | 7.06  | 0.000   |
|        | 디지털 활용능력(pc) | 0.074  | 2.83  | 0.005   |
|        | 연령           | -0.002 | -0.68 | 0.499   |
|        | 성별           | 0.012  | 0.13  | 0.896   |
|        | 국적2          | 0.042  | 0.79  | 0.427   |
|        | 국적3          | 0.041  | 0.87  | 0.386   |
|        | 국적4          | 0.112  | 2.23  | 0.025   |
|        | 교육수준2        | 0.599  | 1.46  | 0.145   |
|        | 교육수준3        | 0.548  | 1.38  | 0.168   |
|        | 교육수준4        | 0.620  | 1.55  | 0.121   |
|        | 월평균소득2       | -0.026 | -0.57 | 0.565   |
|        | 월평균소득3       | 0.011  | 0.23  | 0.815   |
|        | 월평균소득4       | -0.133 | -2.21 | 0.027   |
|        | cons         | 1.066  | 2.39  | 0.017   |

#### 4.3.4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

독립변수를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use\_mo)으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각각 2020년과 2021년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use\_mo)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 4.3.4.1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 / 2020년)



[그림 4-10]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 / 2020년)

[표 4-15]는 2020년 기준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use\_mo)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상술한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된다. 2020년 기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의 계수값은 0.300을 가지며,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사회적 자본은 0.422,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은 0.183의 계수값을 가진다. 모두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낸다.

[표 4-15]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활용능력(모바일)/2020년)

Number of obs = 538

LR test of model vs. saturated:  $\chi^2(11) =$

Estimation method: 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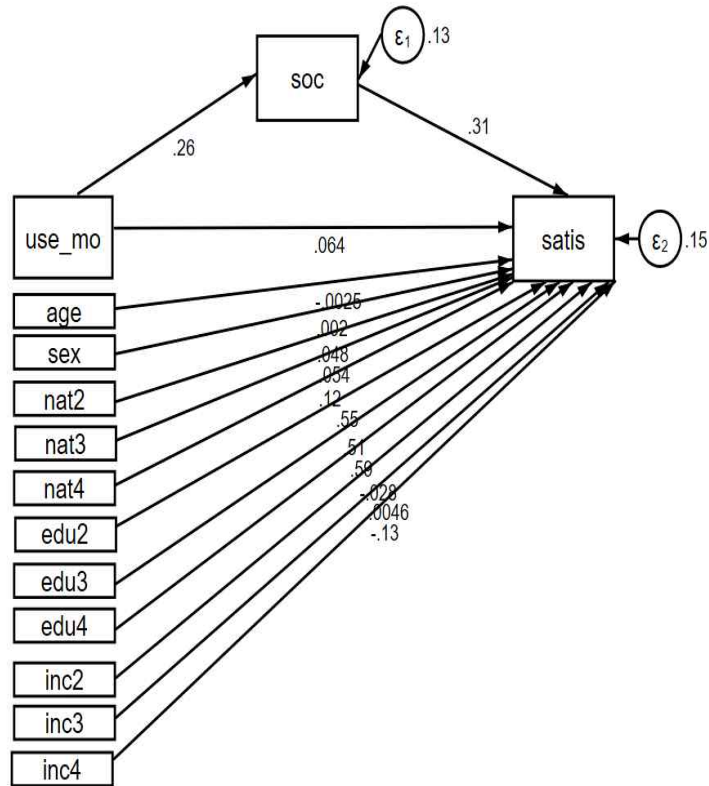
28.89

Log likelihood = -3792.2271

Prob >  $\chi^2 = 0.0024$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Coef.  | z     | p-value |
|--------|---------------|--------|-------|---------|
| 사회적 자본 | 디지털 활용능력(모바일) | 0.300  | 10.85 | 0.000   |
|        | cons          | 1.995  | 26.53 | 0.000   |
| 삶의 만족도 | 사회적 자본        | 0.422  | 10.24 | 0.000   |
|        | 디지털 활용능력(모바일) | 0.183  | 6.16  | 0.000   |
|        | 연령            | -0.003 | -1.43 | 0.154   |
|        | 성별            | -0.012 | -0.13 | 0.900   |
|        | 국적2           | 0.022  | 0.41  | 0.683   |
|        | 국적3           | 0.038  | 0.61  | 0.544   |
|        | 국적4           | -0.076 | -1.41 | 0.158   |
|        | 교육수준2         | 0.117  | 0.45  | 0.651   |
|        | 교육수준3         | 0.005  | 0.02  | 0.984   |
|        | 교육수준4         | 0.128  | 0.51  | 0.608   |
|        | 월평균소득2        | 0.060  | 0.98  | 0.328   |
|        | 월평균소득3        | 0.131  | 2.29  | 0.022   |
|        | 월평균소득4        | 0.130  | 2.34  | 0.019   |
|        | cons          | 1.001  | 3.51  | 0.000   |

#### 4.3.4.2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 / 2021년)



[그림 4-11] 매개모형 도식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 / 2021년)

[표 4-16]은 2021년 기준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use\_mo)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하여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 사회적 자본 변수 모두 계수값이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의 계수값은 0.258을 가지며,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사회적 자본은 0.309,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은 0.064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 유의성을 모두 나타낸다.

[표 4-16] 매개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디지털 활용능력(모바일)/ 2021년)

Number of obs = 574

LR test of model vs. saturated:  $\chi^2(11) =$

Estimation method: ml

23.82

Log likelihood = -3407.895

Prob >  $\chi^2 = 0.0135$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Coef.  | z     | p-value |
|--------|---------------|--------|-------|---------|
| 사회적 자본 | 디지털 활용능력(모바일) | 0.258  | 11.58 | 0.000   |
|        | cons          | 2.124  | 33.88 | 0.000   |
| 삶의 만족도 | 사회적 자본        | 0.309  | 6.69  | 0.000   |
|        | 디지털 활용능력(모바일) | 0.064  | 2.16  | 0.031   |
|        | 연령            | -0.003 | -1.15 | 0.249   |
|        | 성별            | 0.002  | 0.02  | 0.984   |
|        | 국적2           | 0.048  | 0.91  | 0.364   |
|        | 국적3           | 0.054  | 1.11  | 0.266   |
|        | 국적4           | 0.123  | 2.47  | 0.014   |
|        | 교육수준2         | 0.549  | 1.33  | 0.184   |
|        | 교육수준3         | 0.506  | 1.26  | 0.206   |
|        | 교육수준4         | 0.588  | 1.46  | 0.144   |
|        | 월평균소득2        | -0.028 | -0.63 | 0.529   |
|        | 월평균소득3        | 0.005  | 0.09  | 0.925   |
|        | 월평균소득4        | -0.126 | -2.09 | 0.037   |
|        | cons          | 1.146  | 2.56  | 0.010   |

상기의 일련의 결과에서 연령과 성별은 한 차례도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디지털 정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자본 확보와 삶의 만족도에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결과로 해석이 된다.

반면, 국적과 월평균소득은 2021년 분석 결과에서 일부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수준은 디지털 생활 서비스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 2021년에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으로 COVID-19 팬데믹 시점에 접어들면서 교육수준, 국적, 소득수준 등이 삶의 만족도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4.4. 매개 효과 검정 (Sobel 검정, Aroian 검정, Goodman 검정)

한편, 매개변수 모형에서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Sobel(1982) 검정, Aroian 검정(Baron & Kenny, 1986), 그리고 Goodman 검정이 사용된다. 이들 검정방법은 계산방식에 차이가 일부 존재하나, 근본적으로 매개변수 개입에 따른 매개효과를 검정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4-17]과 같이 3가지 검정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변수별·연도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4-17] 변수별 연도별 매개효과 분석 (Sobel, Aroian, Goodman Test)

| 독립변수           | 연도   | Sobel test. |      |         | Aroian test. |      |         | Goodman test. |      |         |
|----------------|------|-------------|------|---------|--------------|------|---------|---------------|------|---------|
|                |      | est.        | z    | p-value | est.         | z    | p-value | est.          | z    | p-value |
| 디지털 생활 서비스     | 2020 | 0.123       | 6.59 | 0.000   | 0.123        | 6.57 | 0.000   | 0.123         | 6.61 | 0.000   |
|                | 2021 | 0.074       | 4.70 | 0.000   | 0.074        | 4.68 | 0.000   | 0.074         | 4.72 | 0.000   |
| 디지털 활용 능력      | 2020 | 0.120       | 7.06 | 0.000   | 0.120        | 7.04 | 0.000   | 0.120         | 7.07 | 0.000   |
|                | 2021 | 0.089       | 5.54 | 0.000   | 0.089        | 5.52 | 0.000   | 0.089         | 5.55 | 0.000   |
| 디지털 활용 능력(pc)  | 2020 | 0.093       | 6.69 | 0.000   | 0.093        | 6.67 | 0.000   | 0.093         | 6.71 | 0.000   |
|                | 2021 | 0.062       | 5.39 | 0.000   | 0.063        | 5.37 | 0.000   | 0.062         | 5.42 | 0.000   |
|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 | 2020 | 0.119       | 7.00 | 0.000   | 0.119        | 7.00 | 0.000   | 0.119         | 7.01 | 0.000   |
|                | 2021 | 0.087       | 5.73 | 0.000   | 0.087        | 5.72 | 0.000   | 0.087         | 5.75 | 0.000   |

Sobel 검정, Aroian 검정, 그리고 Goodman 검정 결과는 디지털 생활서비스, 디지털 활용능력, 디지털 활용능력(pc),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을 각각 설정한 매개모형 모두에서 매개효과는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Sobel 검정에서 확인 한 바와 같이 dls는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면 디지털 생활서비스가 0.123에서 0.074로, 디지털 활용능력은 0.120에서 0.089로, 디지털 활용능력(pc)가 0.093에서 0.062로, 디지털 활용 능력(모바일)이 0.119에서 0.087로 모든 변수가 202년에 비하여 2021년의 수치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obel 검정뿐만 아니라 Aroian 검정, 그리고 Goodman 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결과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발생하되 그 효과는 2020년보다 2021년 매개효과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위와 같은 결과는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하여 디지털 활동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팬더믹 기간동안에 디지털 정보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오히려 결혼 이민자들의 삶에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고, 사회적 관계 형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 과정에 사회적 자본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V. 결 론

### 1.1 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사회적 자본이 그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전후의 변화에 주목하여 디지털 활동의 양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자본 형성, 삶의 만족도 변화 사이의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디지털 활동이 현대 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에 미치는 효과와 그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은 학계에서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라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활동의 효과를 이해하고, 그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며 결혼이민자이며, 이들은 디지털 활동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자신들만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에게 COVID-19 팬데믹 전후의 디지털 활동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삶의 만족도의 변화가 없었는지를 확인하였고, 변화가 있는 시기를 특정하여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에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COVID-19를 기준으로 한 전후 시점을 구분하여 디지털 활동,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① RDD(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분석을 통하여 연구 대상 변수별로 COVID-19 전후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변화가 있는 특정시기를 특정하였고, 특정시기는 2021년으로 나왔다. ② 2020년과 2021년을 특정하여 구조방정식 매개 모형을 통하여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차이 확인하였고, 이들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16년부터 2023년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RDD로 분석한 결과, 2020년과 2021년 사이에서 디지털 활동, 특히 PC 및 모바일 디지털 정보화 활용과 디지털 생활 서비스 이용에서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상기의 결과는 2019년 말 발생한 COVID-19 팬데믹이 2020년에 만연해지면서 사회적 고립과 더불어 디지털 정보화 활용 능력 및 사회적 자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2021년 전후로 더욱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 하였으나, 디지털 정보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오히려 결혼이민자들의 삶에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고, 사회적 관계 형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디지털 활동이 사회적 자본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간접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보다 2021년의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의 강도가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생활 서비스 이용(dls), PC 활용 능력(use\_pc), 모바일 활용 능력(use\_mo)이 모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했다.

이같은 결과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디지털 활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과한 디지털 활동이 오히려 결혼이민자의 삶에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관계 형성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 1.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며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본의 한정성으로 인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라는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계층이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

은 문화적 적응, 언어 장벽, 사회적 차별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집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디지털 활동의 효과가 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일반 대중으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팬데믹 외부 요인 고려의 한계가 존재한다. COVID-19 팬데믹이라는 외부 충격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이외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정책 변화, 교육 수준 향상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외부 요인들은 디지털 활동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연구 결과 해석의 신뢰성을 제한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측정의 제한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은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이를 단일 지표로 측정하였으나, 사회적 자본의 다차원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디지털 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매개하는 방식에 대해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제한된 고려 사항이 있다. 본 연구는 연령, 성별, 국적,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나, 다른 잠재적 영향 요인(예: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수준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하여 연구 결과의 해석에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다.

첫째,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국한했으나, 다른 국가들에 있는 결혼이민자들로 대상을 확대할 수가 있다. 각 나라별 디지털 인프라와 정책 차이는 디지털 활동의 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개발도상국 간의 결혼이민자 집단을 비교하면 디지털 활동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적 교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이다. 디지털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이 결혼이민자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AI 기술은 개인화된 언어 학습 지원, 문화적 적응을 돕는 맞춤형 추천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가상 비서 등의 형태로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경험을 혁신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 기술은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몰입형 환경(예: 메타버스와 AI 결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활동의 질적 분석 강화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활동의 유형(예: 정보 검색, 소셜 네트워킹, 오락 등)과 구체적인 맥락(예: 비대면 사회적 상호작용, 원격 교육 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결합한 혼합연구 방법론을 활용하면 디지털 활동의 세부적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강상훈, 백은미, 이세미. (2024). 중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역량 수준이 디지털 대전환으로 변한 일상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COVID-19 시기 디지털 정보 서비스 경험에 대한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71(1), 5-31.
- 강소라. (202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기표현,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5(6), 586-595.
- 강혜정, 이광원. (2024). 이민자의 디지털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국내 이민자의 인식 및 수요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8(3), 1-32.
- 곽경주, 전귀연. (2024). 양육미혼모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과 차별경험의 다중가산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9(3), 71-90.
- 구윤모, 오주현. (2018). 사회적 관계가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적 자본 관점.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5), 455-461.
- 구윤모, 오주현. (2019).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디지털 기기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적 자본 관점. 『경영정보학연구』, 21(3), 131-149.
- 권선희. (2022).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취약계층의 계층별 분석. 『지식경영연구』, 23(4), 1-19.
- 권혁범, 이정연, 장유린, 최은정. (2012). 결혼이주민여성을 위한 한국어 디지털 교육 콘텐츠 UI 컨셉 제안.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012(1), 741-743.
- 기나휘, 김재승, 정주영, 한진경. (2024).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디지털 정보

- 역량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6(2), 279-305.
- 김기동, 남태우. (2024). 지역 주민의 디지털 격차에 관한 연구: 다층모형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7(3), 33-67.
- 김대명. (2022).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PC/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과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4(1), 73-97.
- 김동현, 전희정. (2018).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사회적 지위 인식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18(11), 3-36.
- 김명일, 김영선, 엄사랑. (2020).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유형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3(1), 51-74.
- 김봉섭, 고정현. (2020). 고령층 디지털 사회 자본에 대한 디지털 조력자 영향 연구: 디지털 정보 활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3(2), 27-57.
- 김선미. (2019). 1인 가구의 사회안전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3), 615-628.
- 김소영, 정진택. (2021). 코로나이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9(12), 531-539.
- 김영미. (2020).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 역량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일상생활 만족도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21(3), 1-32.
- 김윤희, 남정민. (2024). 고령층의 인공지능 인식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생산 공유와 네트워킹의 이중매개 효과와 사회적 자본의 조절된 매개효과. 『Entrepreneurship&ESG연구』, 4(2), 65-95.
- 김은경. (2008).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가정과 삶의질연구』, 26(6), 83-94.
- 김이수, 최예나. (2020). 지역주민의 디지털 참여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24(3), 253-281.
- 김주리. (2023). 고령 1인가구의 디지털 활용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40(2), 1-24.
- 김준수, 조우홍. (2023).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리뷰』, 8(4), 345-364.
- 김준수, 조우홍. (2024).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사회자본, 삶의 만족도 관계. 『사회과학리뷰』, 9(1), 227-247.
- 김태웅, 최화준, 이정우. (2022).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3), 372-382.
- 김태준, 이미라. (2019).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6(2), 271-294.
- 김태희, 홍근석. (2021). 개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3), 214-255.
- 김한현, 송단비. (202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디지털전환 및 시사점. 『월간 KIET 산업경제』, -(273), 55-66.
- 김해란. (2024). 결혼이민자의 디지털정보 활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기술 활용태도의 매개효과 및 디지털기기 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2024(0), 96-114.
- 김현정, 김미예, 노환호, 김범수. (2023). 소비자의 디지털 역량과 활용이 디지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사용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9(4), 171-193.
- 김현정, 김범수, 김미예. (2024). 코로나-19 확산 시기별 디지털 격차: 모바일 인터넷 이용량 증가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5(1), 193-215.
- 김혜나. (2023). 유자녀 국내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자본

- 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휴먼웨어 연구』, 6(3), 1-27.
- 김혜연. (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1-29.
- 김효정. (2018). 결혼이민자 여성소비자의 디지털정보격차지수 결정 요인: 연령별 차이 연구. 『Human Ecology Research』, 56(3), 217-232.
- 나장함, 김희주. (2017).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5(11), 485-496.
- 류성진, 고흥석. (2021). 디지털 네이티브 vs. 디지털 이민자 집단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온라인 플랫폼 이용행위, 저렴한 구매욕구 충족행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5(1), 33-70.
- 문영민, 임예직. (2020). 사회적 자본이 4차 산업혁명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장애 유무의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24(4), 205-233.
- 박선주, 김성준, 고정현, 권유진. (2020). 디지털 정보활용 유형이 세대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34(3), 49-81.
- 박용순, 고동완. (2010). 농촌관광마을에서 사회적 자본이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4(8), 33-55.
- 박윤지, 전명희. (2012).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비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3), 383-392.
- 박재성, 김경나. (2020). SNS의 사회적 자본이 건강정보 활용수준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4(2), 1-14.
- 박지혜, 김병조. (2023). 코로나-19 시기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7(1), 152-183.
- 박태정. (2017). 노인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8(4), 429-445.



- 방성아. (2019). 결혼이민자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활용 정책방안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1), 181-184.
- 배선길, 백남설, 하재룡. (202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직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 『한국경찰학회보』, 22(1), 69-95.
- 배순영, 구혜경. (2022). 코로나 19 이후 고령소비자의 소비생활 현황 및 디지털 인식 변화 연구 : 2019년과 2021년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활용. 『消費者問題研究』, 53(2), 83-113.
- 배정환. (2021). 코로나 시대, 미국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범죄: 인종주의 담론과 사회 통제에 관한 논의. 『경찰학연구』, 21(3), 183-208.
- 백세현, 이성규. (2021). 지체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2(52), 85-110.
- 서현빈, 박소연. (2024). 디지털 조력이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적취득 유무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5(8), 173-183.
- 손민석. (2023).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신화. 『국가와 정치』, 29(1), 153-196.
- 송종대. (2023). 코로나19와 디지털 정보격차 -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디지털 접근성 변화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82), 10-34.
- 송훈. (2021).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한인 이민 청소년을 위한 평화, 통일교육의 가능성. 『신학과 실천』, -(73), 697-724.
- 신승윤, 엄석진. (2019). 국내 결혼이민자의 모바일인터넷 이용활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2(2), 73-109.
- 신지원. (2024). 디지털 자본이 재한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 이주민의 사회적 포용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東南亞研究』, 34(2), 29-54.
- 신진영, 이원지. (2019). 사회적 자본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1(2), 85-93.

- 신희정. (2022). 코로나19 기간 중 캐나다와 호주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인문사회 21』, 13(5), 939-950.
- 오금숙, 김운정.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 부부친밀감, 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건강학회지』, 3(1), 15-25.
- 오정수, 장준. (2019). 중국도시거주 신세대농민공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Journal of China Studies』, 22(4).
- 오주현. (2024).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연령 집단별 일상 변화 만족도: 디지털 역량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량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4(4), 493-507.
- 오지원, 이지현, 여영훈. (2022). 결혼이민자의 디지털조력자가 정보이용태도, 정보이용성가에 미치는 영향: 광역시와 기타 시군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1), 79-83.
- 오지원, 이지현, 여영훈. (2023).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지원체계가 정보이용태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70(3), 39-67.
- 유나리, 김승완. (2020).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10(9), 111-122.
- 윤희정, 신혜리, 김영선. (2020).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정보화정책』, 27(4), 85-100.
- 이동기. (2021).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5(1), 219-239.
- 이미라. (2011).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4), 413-443.
- 이민상, 김동욱, 조영민. (2020).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적응이 한국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2), 23-61.
- 이민아. (2010). 이민 전·후의 연결망이 결혼이민자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도와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

- 학』, 0(27), 31-60.
- 이상희. (2024). 이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코로나19 시기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63(1), 147-171.
- 이소영. (201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공적 지원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2(2), 253-285.
- 이영분, 이유경. (2010). 거주지역에 따른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아분화 및 문화적응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28(1), 145-157.
- 이윤아, 윤상오. (2023). 코로나19 재난과 정보격차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6(3), 1-35.
- 이정선, 박효영. (2023). 고령층의 디지털 조력자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활용과 사회적 자본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4(9), 2047-2057.
- 이종열, 허철무. (2020). 베이비부머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본, 경제적 준비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8(10), 41-50.
- 이주형, 김기연. (2022). 중고령자의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이용량 변화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5(1), 35-61.
- 이지현, 오지원, 여영훈. (2022). 코로나19시대 디지털서비스이용량 변화가 노인의 일상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전기 · 후기노인 비교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1), 346-346.
- 이창식. (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17(4), 717-742.
- 이창화. (2018). 사회적 자본과 노인 삶의 만족도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8(6), 287-292.
- 이한나, 권진. (2024).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연구: COVID-19 전후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검증. 『차세대융합기술학회 논문지』, 8(8), 1824-1835.

- 이한주, 엄주희. (2022). 포스트 코로나19시대에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의 법적 과제 : 비대면 의료를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30(2), 79-102.
- 이홍재, 박미경. (2020). 노인의 정보격차와 삶의 만족도 : PC와 모바일 기기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9(2), 209-241.
- 이홍재. (2019). 결혼이민자의 모바일 정보격차가 한국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2차 정보격차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8(1), 223-249.
- 인선영. (2019).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경로모형: 사회적 자본과 우울의 매개 효과 분석. 『한국이민학』, 6(2), 35-85.
- 임선미, 이보영. (2016). 중장년층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1), 49-63.
- 임수경. (2019).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이 고령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복지연구』, 10(1), 119-143.
- 임예직, 문영민, 이정하. (2022).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72(-), 115-143.
- 임예직, 문영민. (2021).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수용 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1(51), 239-264.
- 임유신, 문상호. (2023). 고령층의 디지털 이용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정관리연구』, 18(1), 61-89.
- 임정훈. (2020). 디지털 정보격차가 온·오프라인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0(-), 720-725.
- 장경미. (2024). 고령자의 디지털기기 이용 효능감과 디지털정보 역량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8), 131-147.

- 장성수, 이정환. (2023). 결혼이주민의 정보격차와 삶의 만족도 연구. 『인문 사회과학연구』, 31(2), 176-194.
- 전대성. (2020). 온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3(2), 1-30.
- 전대성. (2023).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조력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변한 일상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4(3), 107-127.
- 정노화, 윤성은, 강정향, 전용일. (2022). 코로나-19 팬데믹이 체류외국인에 미친 영향 분석. 『다문화와 평화』, 16(1), 123-147.
- 정영애. (2021). 코로나19와 디지털 대전환. 『廣場』, 221(-), 51-63.
- 정유빈, 허준수. (2022).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5(4), 1-27.
- 정인관. (2021). 한국의 디지털 불평등: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4~2019 분석. 『인문사회 21』, 12(2), 1875-1886.
- 정현경, 박찬주. (2022).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PC, 모바일) 이용과 디지털 정보 기술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농어촌관광연구』, 25(2), 131-144.
- 조성희. (2023).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24(6), 65-72.
- 조우홍, 김준수, 장영은, 최대훈. (2024).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2(1), 203-206.
- 조형오. (2018). SNS 이용자의 가치체계의 특징이 SNS 이용동기, 사회적 자본, 이용행위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9(2), 351-362.
- 최예나. (2021).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활용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3), 25-58.

- 최예나. (2024). 디지털 기술 수용성과 디지털 시민성이 정보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8(1), 139-169.
- 최재서, 최창욱, 양사범, 김정환. (2024).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프라이버시 염려가 전자상거래 이용 경험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발생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5(6), 1641-1654.
- 최종태, 이원웅, 안나겸. (2016). 사회적 자본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21(-), 227-248.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6~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 허덕원. (2020). 결혼이민자의 다층적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디지털 조력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1-20.
- 허만섭. (2021). 인터넷 심화 활용이 인터넷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디지털 정보 활용수준격차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2(9), 1467-1476.
- 허세미. (202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 모바일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4(9), 2027-2036.
- 황지영. (2022). 중고령자의 디지털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실천학회지』, 14(1), 115-136.

## 2. 국외문헌

- Agyekum, B. (2020).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amongst African Immigrants in Hamilton, Canada. *Societies Without Borders*, 14(1), 12.
- Allen, R., Pacas, J. D., & Martens, Z. (2023). Immigrant legal status among essential frontline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r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57(2), 521–556.
- Amati, V., Meggiolaro, S., Rivellini, G., & Zaccarin, S. (2018). Social relations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friends. *Genus*, 74, 1–18.
- Angelini, V., Casi, L., & Corazzini, L. (2015). Life satisfaction of immigrants: does cultural assimilation matter?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8, 817–844.
- Arpino, B., & De Valk, H. (2018). Comparing life satisfaction of immigrants and natives across Europe: The role of social contac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7, 1163–1184.
- Baker, A. L., Cahalin, P. L., Gerst, K., & Burr, A. J. (2005). Productive activ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The influence of number of activities and time commit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73, 431–458. DOI:10.1007/s11205-005-0805-6
- Baltatescu, S. (2014). Unhappier, but more satisfied: social comparison and the paradox of the immigrant satisfaction. Available at SSRN 2576992.
- Behbahani, S., Smith, C. A., Carvalho, M., Warren, C. J., Gregory, M., & Silva, N. A. (2020). Vulnerable immigrant populations in the New York metropolitan area and COVID-19: lessons learned in the epicenter of the crisis. *Academic Medicine*, 95(12), 1827–1830.
- Berggren, N., Bergh, A., Bjørnskov, C., & Tanaka, S. (2020). Migrants

-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country of residence. *Kyklos*, 73(3), 436–463.
- Calvo, R., Carr, D. C., & Matz-Costa, C. (2017). Another paradox?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Hispanic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9(1), 3–24.
- Calvo, R., Carr, D. C., & Matz-Costa, C. (2019). Expanding the happiness paradox: Ethnoracial dispariti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31(2), 231–255.
- Calvo, R., Zheng, Y., Kumar, S., Olgiati, A., & Berkman, L. (2012). Well-being and social capital on planet earth: cross-national evidence from 142 countries.
- Cheong, P. H., Edwards, R., Goulbourne, H., & Solomos, J. (2007). Immigration, social cohesion and social capital: A critical review. *Critical Social Policy*, 27(1), 24–49.
- Choi, A. (2020).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nd Old People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Focusing on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Future Knowledge and Information Technolog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 11–19. DOI:10.14400/JDC.2020.18.12.011.
- Choi, H., & Song, I.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the Elderly's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 246–255. DOI:10.5762/KAIS.2020.21.6.246.
- Choi, N. G., & DiNitto, D. M. (2013). "The digital divide among low-income homebound older adults: Internet use patterns, eHealth literacy, and attitudes toward computer/Internet use."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5(5), e93.
- Cholera, R., Falusi, O. O., & Linton, J. M. (2020). Sheltering in place in



- a xenophobic climate: COVID-19 and children in immigrant families. *Pediatrics*, 146(1).
- Chong-Min Park. (2008). "The Quality of Life in South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92, 263–294.
- Cotten, S. R., Anderson, W. A., & McCullough, B. M. (2013). "Impact of internet use on loneliness and contact with others among older adults: Cross-sectional analysis."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5(2), e39.
- Crowley, F., & Walsh, E. (2018). How important are personal ties, trust and tolerance for life satisfaction in Europe? (No. SRERCWP2018-1). *SRERC Working Paper Series*.
- Crowley, F., & Walsh, E. (2024). Tolerance,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 multilevel model from transition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Review of Social Economy*, 82(1), 23–50.
- D. Adzrago, F. Williams, "Mediation Analysis of Mental Health Characteristics Linking Social Needs to Lif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s", *SSM-Population Health*, 24, 101522 (2023). DOI:10.1016/j.ssmph.2023.101522.
- Drydakis, N. (2021). Mobile applications aiming to facilitate immigrants' societal integration and overall level of integration, health and mental health: Does artificial intelligence enhance outcom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17, 106661. DOI:10.2139/ssrn.3747451
- Dutta-Bergman, M. J. (2005). Access to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mmunity satisfaction. *New Media & Society*, 7(1), 89–109. DOI:10.1177/1461444805049146
- E. Ambrosetti, A. Paparusso,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Quality of Neighbourhood and the Self-Reported Life Satisfaction in Immigrants Versus Natives in Europe?", *Journal of*

-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25(2), 799–826 (2024). DOI:10.1007/s12134-023-01104-x.
- Elgar, F. J., Davis, C. G., Wohl, M. J., Trites, S. J., Zelenski, J. M., & Martin, M. S. (2011). Social capi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in 50 countries. *Health & Place*, 17(5), 1044–1053.
- Fairchild, A. J., & MacKinnon, D. P. (2009). A general model for testing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Prevention Science*, 10, 87–99.
- Frank, K., Hou, F., & Schellenberg, G. (2016). Life satisfaction among recent immigrants in Canada: comparisons to source-country and host-country popula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 1659–1680.
- Fugl-Meyer, A. R., Melin, R., & Fugl-Meyer, K. S. (2002). Life satisfaction in 18-to 64-year-old Swedes: in relation to gender, age, partner and immigrant status.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34(5), 239–246.
- Gao, K., Jiang, M. M., Wu, Z. Y., & Guo, P. P. (2022). "Influence of perceived importance of the internet on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of the older people: An analysis based on intermediary and moderating effect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0, 952619.
- Gomez, C., Perera, B. Y., Wesinger, J. Y., & Tobey, D. H. (2020). Immigrant entrepreneurs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an exploration of motivations and agency.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27(4), 579–605.
- Hayat Boz, & Sibel Esra Karatas. (2015). "A review on internet use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Cypriot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s*, 10, 182.
- Hill, J., Rodriguez, D. X., & McDaniel, P. N. (2021). Immigration status as a health care barrier in the USA during COVID-19. *Journal of Migration and Health*, 4, 100036.

- Hill, R., Betts, L. R., & Gardner, S. E. (2015). "Older adult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digital technology: (Dis) empowerment, wellbeing, and inclus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8, 415–423.
- Hombrados-Mendieta, M. I., Gomez-Jacinto, L., Dominguez-Fuentes, J. M., & Garcia-Leiva, P. (2013). Sense of community and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immigrants and the native popul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5), 601–614.
- Hongjik Lee.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Focusing on Socioeconomic and Social Capital Traits."
- Hoogerbrugge, M. M., & Burger, M. J. (2018). Neighborhood-based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the case of Rotterdam, the Netherlands. *Urban Geography*, 39(10), 1484–1509.
- Imbens, G. W., & Lemieux, T. (2008).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s: A guide to practice. *Journal of Econometrics*, 142(2), 615–635.
- Inaba, Y., Wada, Y., Ichida, Y., & Nishikawa, M. (2015). Which part of community social capital i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nd self-rated health? A multilevel analysis based on a nationwide mail survey in Japan. *Social Science & Medicine*, 142, 169–182.
- Ivlevs, A., & Veliziotis, M. (2018). Local-level immigr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EU enlargement experience in England and Wal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0(1), 175–193.
- Kang, J. S. (2014).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Community Resi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2), 875–882.
- Khadijah, A. (2023). Immigrants, health, and the impact of COVID-19: A narrative review. *F1000Research*, 12.

- Kiester, E., & Vasquez-Merino, J. (2021). A virus without papers: Understanding COVID-19 and the impact on immigrant communities. *Journal on Migration and Human Security*, 9(2), 80–93.
- Koczan, Z. (2013). Does integration increase life satisfaction?
- Kroll, C. (2008). Social capital and the happiness of nations. The importance of trust and networks for life satisfaction i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Frankfurt aM: Lang*.
- Kushnirovich, N., & Sherman, A. (2018). Dimensions of life satisfaction: Immigrant and ethnic minor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56(3), 127–141.
- Levine, L., & Taylor, M. P. (2018). Closing the digital divide: A historic and economic justification for government interven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School of Public Policy Working Paper Series*, 5. DOI:10.1108/s2050-206020180000018003
- Lissitsa, S., & Chachashvili-Bolotin, S. (2016). Life satisfaction in the internet age—Changes in the past decad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4, 197–206.
- Lucchini, M., Bella, S. D., & Crivelli, L. (2015).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in Switzer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Happiness and Development*, 2(3), 250–268.
- M. A. Tegegne, J. L. Glanville, "The Immigrant–Native Gap in Subjective Well-Being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Assessing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53(2), 458–485 (2019). DOI:10.1177/0197918318769309.
- Maass, R., Kloeckner, C. A., Lindstrøm, B., & Lillefjell, M. (2016). The impact of neighborhood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and self-rated health: A possible pathway for health promotion? *Health & Place*, 42, 120–128.

- Massey, D. S., & Redstone, A. I. (2006). Immigrant intentions and mobility in a global economy: The attitudes and behavior of recently arrived US immigrants. *Social Science Quarterly*, 87(5), 954–971. DOI:10.1111/j.1540-6237.2006.00410.x
- Mays, V. M., Becerra, R., & Cochran, S. D. (2023). The American dream: is immigration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for Latinos of Mexican descent? *Healthcare*, 11(18), 2495.
- OECD. (2020). What is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Tackling Coronavirus (COVID-19): Contributing to a Global Effort.
- P. C. Ekoh, T. J. Okolie, F. B. Nnadi, O. Oyinlola, C. A. Walsh, "Understanding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on the Well-Being of Older Immigrants and Refugees: A Scoping Review", *Digital Health*, 9, 20552076231194947 (2023). DOI:10.1177/20552076231194947.
- Perera, B. Y., Gomez, C., Weisinger, J. Y., & Tobey, D. H. (2013).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the growth and innovation of immigrant-founded enterpris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 and Learning*, 13(1), 33–49.
- Piracha, M., Tani, M., & Vaira-Lucero, M. (2016). Social capital and immigrants' labour market performance. *Papers in Regional Science*, 95, S107–S127.
- Pugno, M., & Verme, P. (2012).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and the bonding-bridging nexu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945.
- Rebhun, U. (2021). Immigrant integration and COVID-19. *Border Crossing*, 11(1), 17–23.
- Reyes, M. S. (2020). The Immigrant Population Amid COVID-19 Pandemic Crisis: A Compiled Project for NURS 518.

- Safi, M. (2010).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in Europe: Between assimilation and discrimin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2), 159–176.
- Sam, D. L. (1998). Predicting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in Norway. *Ethnicity & Health*, 3(1–2), 5–18.
- Schimmack, U., & Oishi, S. (2005). The influence of chronically and temporarily accessible information on life satisfaction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395.
- Sohrabi, M. R., Amin, R., Maher, A., Janbazi, S., & Zali, A. R. (2022). Migrant Health and COVID-19 Pandemic: A Cross-sectional Study of Characteristics, Clinical Features, and Health Outcome from Iran. *Journal of Epidemiology and Global Health*, 12(4), 449–455.
- Takahashi, K., Thuy, N. T. M., Poudel, K. C., Sakisaka, K., Jimba, M., & Yasuoka, J. (2011).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 cross-sectional study on persons with musculoskeletal impairments in Hanoi, Vietnam. *BMC Public Health*, 11, 1–8.
- Tata, J., & Prasad, S. (2015). Immigrant family businesses: social capital, network benefits and business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21(6), 842–866.
- Turkina, E., & Thai, M. T. T. (2013). Social capital, networks, trust and immigrant entrepreneurship: a cross-country analysis. *Journal of Enterprising Communities: People and Places in the Global Economy*, 7(2), 108–124.
- V. Angelini, L. Casi, L. Corazzini, "Life Satisfaction of Immigrants: Does Cultural Assimilation Matter?",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8, 817–844 (2015). DOI:10.2139/ssrn.2439643.
- Vemuri, A. W., Morgan Grove, J., Wilson, M. A., & Burch Jr, W. R. (2011). A tale of two scales: Evaluating the relationship among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incom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at

- individual and neighborhood levels in metropolitan Baltimore. *Environment and Behavior*, 43(1), 3–25.
- Vohra, N., & Adair, J. (2000). Life satisfaction of Indian immigrants in Canada.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12(2), 109–138.
- Wilson, F. A., & Stimpson, J. P. (2020). US policies increase vulnerability of immigrant communities to the COVID-19 pandemic. *Annals of Global Health*, 86(1).
- Woo, M., & Kim, S. (2018). Does social capital always raise life satisfaction? A comparison of South Korea and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7(2), 121–131.
- Woolley, F. (2021). What Happened to the Immigrant Life Satisfaction Gap? *Canadian Public Policy*, 47(4), 510–522.
- Yang Yang, Dan Zeng, & Fan Yang. (2022). Internet Use and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A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Based on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 12087.
- Yumei Zhu, Yifan Zhou, Cuihong Long, & Chengzhi Yi.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in China: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Healthcare*, 9, 559.
- Zhang, Q., Guo, X., & Vogel, D. (202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Use for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 Motivation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45(4), 701–710. DOI:10.5993/AJHB.45.4.9.
- Zhou, D., Xu, Y., & Ai, P. (2022). The Effects of Online Social Interactions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Chinese Adults: New Insights Based on a Longitudinal Approach. *Healthcare*, 10(10), 1964.

# ABSTRACT

Impact of digital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s before and after COVID-19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Kim, Nae-Young

Major in Smart Convergence Consulting

Dept. of Smart Convergence Consul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digital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ed immigrants and examines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in this relationship. Married immigrants are a vulnerable group who experience social marginalization due to linguistic, cultural, and economic barrier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can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ir social networks and access to digital technologies.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d on changes in digital activity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interplay between social capital formation and life satisfaction. Under the unprecedented external shock of the pandemic, married immigrants' digital activities shifted from optional to essential survival tools, with complex effects on their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activities,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using data from 2016 to 2023 for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South Korea. The research methodology applied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and mediation effect analysis to identify temporal changes an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digital activities,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2016 to 2023 and analyzed the interactions between digital activity,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t two time points: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research methodology included RDD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 sharp change before and after COVID-19 for each variable under study to identify a specific period of change, which turned out to be 2021. And then, we identified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 capital and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ediation model for 2020 and 2021, and analyzed the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Data from 2016 to 2023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RDD, and a clear change in digital activities, especially in the use of PC and mobile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and digital life services, was identified between 2020 and 2021.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COVID-19 pandemic, which started in late 2019 and became widespread in 2020, led to social isolation and affected digital literacy and social capital, and further affected digital literacy levels and social capital formation around 2021. The reliance on digital technologies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pandemic, which may have contributed to reducing social isolation, but the excessive use of digital information devices may be contributing to increased fatigue and decreased social connection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showed that digital activities

always have an indirec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social capital. However, we found that the strength of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decreased in 2021 compared to 2020. In addition, digital life service use, digital literacy (PC), and digital literacy (mobile) all had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spite the increase in digital activiti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life satisfaction is decreasing. This suggests that excessive digital activity may increase fatigue and decrease the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Key words】** Marriage Immigrants, Digital Activities,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COVID-19 Pandemic